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 등록 1960년 7월 1일 |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행인 황병태
편집인 심규세
편집장 임재형
외대신문사 (직통전화 962—7128)
외대학보 (직통전화 965—7048)
13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170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한국경제신문사 이규행

제459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7년 3월 17일 (화요일)

양캠퍼스서 정기학생총회 열려

"작금의 억압적구조 철폐를 위해 투쟁할터"

87학년 제1학기 정기학생총회가 3월16일 (월) 오후 2시 20분 삼민광장에서 열렸다.

손근우 총학생회장, 각단과대학생회장을 비롯, 약 4백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번 정기총회에서 손근우총학생회장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1만2천 외대인주학우들이 모여 21대총학을 건설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본총회의 의의를 밝혔다.

87년총학의 방향성에 대해손근우총학생회장은 『전체학우와 꼭 쟁해야할 총학생회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학우의 권익옹호를 위한적극적인 실천을 하면서 전체대중운동의 일관된 국민적투쟁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87년총학의 사업계획은 민주집중과, 공개화를 원칙으로 3월중에는 총대의원회, 써연결성에 대한 공청회개최, 4월중에는 4·19혁명계승제, 5월에는 5월대동단결제,농활, 외문제전, 해방제등의 행사를 마련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각 부서별계획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는데 주로 학내 도서관 문제와 추가수강신청시의 수업증지 부착등 복;문제에 대해 토의를 했다.

각단과대대학생회장도 단대별 1년사업계획발표를 가졌으며 토론회에서는 8명의 학생이 「여학생회 구성문제」 「전방입소에 대한 총학생회의 주체성결여 문제」 「ROTC 들의 무분별한 캠퍼스내 에서의 구호외침」 「여학생기숙사 건립과 공동판매장 마련」 등에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한 총학생회 답변내용은 여학생회구성의경우 현재 검토중으로 2학기내에 구체적계획을 발표 하겠다고 했으며 ROTC들의 지나친 경례행동은 학군단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여학생기숙사와 「공동판매장」 설립문제는 현재 학교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오후 3시30분경에 학생회장의 폐회사로 모든 식을 마쳤다.

동문장학생 선발

본교 총동문회는 동문장학생을 선발한다.

서울·용인캠퍼스 3,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가정빈곤자, 각종 장학금 미수혜자 동문회근로봉사자등의 자격을 갖추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자기소개서, 학과장추천서, 성적증명서 각 1통씩이다.

단, 성적증명서는 2학기성적표 사본도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9일(목)까지이며 신청은 (서울캠퍼스본관 335호)에 제출하면된다.

한편 장학금의 지급액수는 1인당 20만원으로 20명의 학생에게 지급된다.

보직교수 인사이동 단행

본교는 지난 3월13일 (금) 자로 임기만료인 박성래 교무처장 후임으로 조규철 (불어) 도서관장을 교무처장에 임명, 발령하는등 보직교수 8명에대한 인사이동이 있었다.

신임 보직교수 인사이동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무처장 : 조규철 (불어) ▲도서관장 : 박성래 (사학) ▲홍보부장겸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 정진석 (신방) ▲법정대 교학과장서리 : 김홍규(신방) ▲야간강좌 야말어 학과장서리 : 오명근 ▲동구어 학과장서리 : 이문수 ▲대학원 서반아어과 주임교수 : 장선영 ▲용인캠퍼스 「도헌학사」 학사장서리 : 육성수 (교양학부)

교양특강 열려

총학생회 여학생부 주최로 교양특강이 오는 3월19일(목) 오후2시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마련된다.

이번에 열리는 교양특강은 「우리것은 우리손으로」 라는 주제로 올바른 여성상 구현과 여성의 억압적 굴레를 탈피하기위해 마련되었다.

교양특강의 강사는 박인덕 (숙대·가정관리학) 교수가 맡게된다.

앵글스 사진전

본교 사진반 「앵글스」는 「제8회 신인전」을 지난 3월11일 (수) 부터 13일 (금) 까지 학생회관 1층 전시실에서 가졌다.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한해동안의 활동을 총 결산한 2학년 회원들의 작품 32점이 전시되었다.

어문대 학생회, 출범식 거행

어문대 학생회 출범식이 지난 3월10일 (화) 오후1시 어문학관 학생회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출범식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허성욱 (사회·사학4) 군, 김용암 야간강좌 총학생회장,사회대·문리대등 각단대 학생회장등과 김영호 교학처장, 어문대 학장 최봉호 (마인어과)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부장 박종훈 (스와힐리어·3) 군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어문대 학생회 출범식에 지난 3월10일 (화) 오후1시 어문학관 학생회실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출범식은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허성욱 (사회·사학4) 군, 김용암 야간강좌 총학생회장,사회대·문리대등 각단대 학생회장등과 김영호 교학처장, 어문대 학장 최봉호 (마인어과)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부장 박종훈 (스와힐리어·3) 군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법학과,신입생 환영회 개최

법학과 신입생환영회가 지난 3월10일 (화) 오후 6시부터 대학원 소강당 (6105) 에서 열렸다.

법학과 교수 학생등 약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이날 환영회에서, 이강혁 법정대학장은 『법학과가 양적인 발전을 한단계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기이며, 법과대학으로의 단대 승격문제는 내년 3월1일 부터 법대가 정식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칠성 법학과학장은 『법과대로의 학제개편은학교측의 배려가 아닌 여러선배들이 투쟁함으로 쟁취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은 비판과 창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 한국의 대학은 어떠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시해야할때』라고 촉구했다. 또한 헌법에 고문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 박종철군이 고문으로 왜 죽어가야 했던가는 법학과 학우들이 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입생환영회는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88올림픽의 문제를 특집 촬극, 노랠모임 새물결의 「다함께 부르기」와 「신입생장기자랑」등의 순서로 오후3시30분까지 진행되었다.

졸업논문 계획서 31일 까지 제출

87학년도 전기졸업 예정자의 졸업논문작성 계획서를 오는3월24일 (화) 부터 31일 (화)까지 각 해당 학과장실에 제출해야 한다.

이기간에 졸업논문 작성계획서를 제출하는 대학은 서양·어문대 (불어),법정대, 상경대, 사범대(불교, 한교),문리대(철학, 화학),사회대등이다.

이번 졸업논문은 1987년 10월6일(화) 까지 지도교수의승인서를 졸업논문에 첨부하여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일 경과시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총학,학군단 사무실서 농성

수강신청 변경기간연기등 요구

지난 3월16일 (월)오후 4시경 정기 학생총회를 마친 30여명의 용인캠퍼스 학생들이 「반강제, 반협박의 수강신청을 철폐하라」 전방입소교육에 대한 세부사항 공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약 10분동안 교내시위를 벌였다.

이어 허성욱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단대장및 학생들이 어문학관 1층에 위치한 학군단 사무실로 가서 「수강신청변경기간을 연기하라」 「주입식교육 철회하고 민주적 토론 보장하라」 「교무과장과의 대화장소를 마련하라」 등의 주장을 하며 약30여분동안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때 사무실에있던 교관들은 「우리는 1학년 담당인 관계로, 2학년 전방입소에대한 수강신청 변경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은 『전방입소 자유선택 과목화 시행에있어 부당하고 일방적인 수강신청변경기간을 확정해, 학생들에게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했다』 라고 전제, 『이러한 반강제적 수강신청 변경 기간은 연기되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최재현 용인캠퍼스 교무과장은 「문교부에 통보해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알려주겠다」 라고 밝혔다.

오후5시경, 학생들은 약 20여분동안 전방입소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한후 17일(화) 「각과 비상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또한 총학생회 자체적으로는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후 5시20분경 학군단 사무실에서 나와 자진 해산했다.

1학년문무대입소 23일부터 28일

87학년도 1학년 병영 집체교육이 오는 3월23일(월) 부터, 5박6일간 실시된다.

1학년의 병영집체훈련은 3월23일부터 28일까지 「문무대」에서 실시되며 입소당일 오전 9시에 잠실 석촌호수에서 집합, 출발한다.

한편, 1학년 남학생 병영집체 교육기간동안 「우리들은 누구인가」 교수의 「여성과 법률」 이라고는 주제하에 병영집체 비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양강좌가 오는 3월25일(수) 대강당에서 개설되며, 용인캠퍼스는 「문학과 우리생활」 등의 주제로강연이 26일에있을 예정이다.

단, 교양강좌의 한강좌 출·결석 처리는 체육 2시간으로 처리된다.

용인총학,식당운영사항 공개요구

어문학관 식당에서 10여분간 농성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3월13일(금) 오후 1시부터 어문대식당에서 「식당(어문대,기숙사,교수식당포함)운영에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을 표명한 후, 약 10여분동안 농성을 했다.

이날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식당업주는 모든 운영사항을 왕산의 모든 학우에게 전면 공개하라」 「순이익의 50%이상을 장학금으로 환원하라」 「식당종업원의 최대생계비를 보장하라」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며 16일(월)에 개최될 학생총회에 식당업주의 참석을 요구했다.

한편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식당운영에 대한 모든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모든 사항을 학생들에게 전면공개할 예정이다.

3월의 캠퍼스를 보며

▲새학기가시작된 이래 캠퍼스는 너무나 침잠하기만 하다. 잦은 정치집회로 인해 캠퍼스내에 거의 배어있다 싶이 한 최루가스냄새도,화염병에 시꺼멓게 그을려있던 문전게시판도 거의 사라진지 오래일을 누구나 쉽게 감지할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이같이 학생운동의 역량손실등으로 인한 침체일로의 분위기가 또다른 폐해감을 느끼게하는 요인은 대체 무엇인지 곰곰히 따져 볼필요를 느낀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날 학생운동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60년대 4·19혁명, 6·3항쟁, 70년대 유신반대투쟁등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고도의 발전양태로서 새로운 질적변화를 거듭해왔음을 알수 있다.

그런가하면, 학생운동이사회 제인식의 축적과 세계관의 제생산을 체계화시켜 자체역원력을 획득하기에 이른 80년대는 자체적으로 「관념적 모험주의」 「기회주의적 준비론」 「소시민적 급진론」 등의 비판이 대두된만큼 급격한 성숙기였음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반성이 학생운동권내에서 체화되지 못하고 편향된 채 지속적인 재생산구조를 담지해내지 못하는 한계성을 통찰해 볼때, 그러한 비판을 그당시만의 얘기로 돌릴수 만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금학생운동 내부의 사상적 대립자에 의해 「사상적 우위성」을 실증하려고 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다했다고는 말할수 없음이다.

그렇다고 비판의 원류는학생운동에타당성을 무시한채 실증적으로 파악하지않고 실상을 호도해사태를 악화시키려는 의도는 아니다.

사실상 전체학생운동의 조류가 어느쪽엔가 사상적 흡탄이거듭되어 어느덧 분파주의적인 경향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으며, 그 전제가 되어야할 통일적인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음은 기형적인 사고에 기인하기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학내 통일적인 실천을 이루는 역량이 없는 지금의 사태를 꾸고 이른의 치밀성을 주장한들 무슨 이익이 있는지 반문해 본다.

어떤 양태이건 위기의 시기가 시시각각 다가옴을 느끼는 지금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통일적인 행동양식도 가일층 심도있게 시도되어야 한다.

<이수진>

학보수첩

▲요즘 대학가 조용 (?)
—잡초의 외지를되새길때
▲신입생 환영회 개막
—선배의 자축회 (自祝會)가 안되길…
▲학군단사무실에서 농성
—자율의지를 위한 출항

제38기 수습기자 모집

말못하는 우리시대, 그러나 허 잘린 만신창이 민주는 다시살아, 오도된 역사를 바로 잡을 끊임없는 비판과 실천을 외치고 있음니다. 어두운 압제의 시대 속에서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를 찾습니다.

▲자 격 : 1학년 재학생
▲모집부문 : 일반기자 ○○명
사진·컷기자 각 ○명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본사소정양식) 1통, 사진1매
▲원서배부및 접수처 :
서울—학생기자실 (학생회관 309호)
용인—학생기자실 (사회과학관 402호)
▲원서접수기간 : 3월3일~4월1일
▲시험과목 :
1차 필기시험—국어 (한문·기사작성 포함)
상식·논문 (사진·컷기자 실기 포함)
2차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시험일시 : 1차—4월1일
2차—4월2일 (장소 추후공고)

외대학보

병무청공고 제1호

1987년도 징병검사 및 병역처분기준 공고

시·도별 구·시·군별 검사일정(본적지)
※개인별 징병검사 수검자 및 장소는 본적지·시 구·읍·면장이 수검일 20일전까지 통지합니다.

시도	구, 시, 군	검사기간
서울특별시	구 로 구	2.10-2.23
	동 작 구	2.24-3.7
	강 동 구	3.9-3.13
	용 산 구	3.19-4.4
	강 남 구	4.6-4.14
	서 대 문 구	4.15-5.7
	마 포 구	5.8-5.25
	성 동 구	5.26-6.15
	중 랑 구	6.16-7.9
	중 구	7.10-8.12
	성 북 구	8.13-8.28
	은 평 구	8.29-9.8
	관 악 구	9.9-9.21
	서 초 구	9.22-9.30
	동 대 문 구	7.9-8.14
	송 파 구	8.17-9.7
	도 봉 구	9.8-9.23
부산직할시·경상남도	김 해 시	3.3-3.5
	김 해 군	3.6-3.13
	양 산 군	3.14-3.21
	울 산 중 구	3.23-3.27
	〃 남 구	3.28-4.1
	울 산 방어진출장소	4.2-4.3
	울 주 군	4.4-4.11
	부산부산진구	4.13-4.27
	밀 양 군	4.28-5.9
	부 산 중 구	5.11-5.15
	〃 동래구	5.16-6.1
	〃 남 구	6.2-6.13
	〃감천출장소	6.15-6.17
	부산해운대구	6.18-6.22
	부 산 북 구	6.23-6.27
	〃 서구	6.29-7.9
	의 창 군	7.10-7.16
	합 천 군	7.20-8.6
	진 해 시	8.7-8.11
	의 령 군	8.12-8.21
	마 산 시	8.22-8.29
	부산 사하구	8.31-9.4
	〃 동 구	9.5-9.16
	〃 영도구	9.17-9.26
	창 원 시	9.28-9.30
	고 성 군	3.17-3.27
	충 무 시	3.28-3.31
	통 영 군	4.1-4.7
	거 제 군	4.8-4.17
	창 녕 군	4.21-5.1
	함 안 군	5.4-5.20
	거 창 군	5.21-6.1
	함 양 군	6.2-6.13
	산 청 군	6.15-6.23
	하 동 군	6.24-7.4
	남 해 군	7.6-7.16
	사 천 포 시	7.20-7.22
	사 천 군	7.23-8.8
	진 주 시	8.10-8.17
	진 양 군	8.18-8.28
	산 청 군	3.3-3.11
	〃 미 시	3.12-3.14
	경 산 군	3.16-3.24
	청 곡 군	3.25-3.31
	성 주 군	4.1-4.11
	의 성 군	4.13-4.30
	월 성 군	5.1-5.16
	김 천 시	5.18-5.23
	김 천 시	5.25-5.27
	선 산 군	5.28-6.10
	칠 곡 군	6.12-6.16
	고 령 군	6.17-6.22
	대 구 중 구	6.23-6.30
	〃 동 구	7.1-7.9
	〃 서 구	7.10-7.21
	〃수 성 구	7.22-7.25
	〃 남 구	8.5-8.11
	〃 북 구	8.12-8.20
	청 도 군	8.21-8.29
	달 성 군	8.31-9.8
	영 천 군	9.9-9.21
	경 산 시	9.22-9.23
	상 주 군	3.17-4.7
	상 주 시	4.8-4.11
	문 경 군	4.13-4.25
	예 천 군	4.27-4.28
	봉 화 군	4.29-5.16
	영 주 시	5.18-5.28
	영 주 시	5.29-6.1
	울 릉 군	6.2-6.13
	울 진 군	6.15-7.4
	영 덕 군	7.6-7.9
	영 일 군	7.10-7.16
	포 항 시	7.20-7.25
	경 주 시	8.5-8.13
	경 주 군	8.14-8.25
	울 산 군	8.26-9.10
	포 항 시	9.11-9.17
	포 항 군	9.18-9.19
	영 천 군	3.17-3.26
	경 주 군	3.27-4.2
	대 성 군	4.3-4.18
	대 덕 군	4.20-4.29
	대 전 시	4.30-5.1
	동 구	5.2-5.4
	서 구	5.6-5.14
	중 남 시	5.15-5.22
	부 천 시	5.23-5.28
인천직할시	인 천 북 구	5.29-6.5
	〃 남 구	6.10-6.22
	〃 동 구	6.23-7.1
	〃 중 구	7.2-7.6
	옹 진 군	7.7-7.9
	과 천 시	7.10
	광 명 시	7.11-7.14
	안 산 시	7.15
	안 양 시	7.16-7.21
	시 흥 군	7.22-7.25
	안 성 군	8.5-8.14
	용 인 군	8.17-8.22
	이 천 군	8.24-8.29
	여 주 군	8.31-9.5
	강 화 군	9.7-9.12
	김 포 군	9.16-9.18
	부평, 대청대	
	파 주 군	3.3-3.11
	동두천시	3.12-3.14
	의정부시	3.16-3.21
	의 정 부 시	3.23-3.25
	포 천 군	3.26-3.31
	포 천 시	4.1-4.2
	남 양 주 군	4.3-4.7
	연 천 군	4.8-4.11
	양 평 군	4.13-4.17
	양 주 군	4.18-4.1
	가 평 군	4.22-4.25
충청북도	제 성 군	4.27-5.4
	화 천 군	5.6-5.7
	횡 성 군	5.8-5.13
	원 주 시	5.14-5.18
	춘 천 군	5.19-5.23
	춘 천 시	5.25-5.26
	홍 성 군	9.18-9.23
	청 원 군	6.4-6.9
	보 은 군	6.11-6.13
	옥 천 군	6.15-6.18
	영 동 군	6.20-6.24
	충 주 시	6.25-6.29
	충 주 군	6.30-7.2
	제 천 시	7.3-7.10
	단 양 군	7.11-7.15
	음 성 군	7.16-7.22
	상 회 시	7.23-7.25
	보 은 군	8.5-8.12
	대 덕 시	8.14-8.18
	청 성 군	8.20-8.27
	대 덕 군	8.29-9.7
	청 원 군	9.8-9.16
	청 원 군	3.3-3.19
	청 원 시	3.20-3.25
	보 은 군	3.27-4.4
	진 천 군	4.6-4.10
	괴 산 군	4.11-4.23
	음 성 군	4.24-5.4
	충 주 시	5.6-5.8
	충 주 군	5.9-5.20
	영 동 군	6.17-6.26
	제 천 시	6.27-7.7
	단 양 군	5.22-5.29
	제 천 시	5.30-6.4
	제 천 군	6.5-6.15
	천 원 군	2.10-2.17
	천 안 시	2.18-2.21
	아 산 군	2.23-3.2
	온 양 시	3.3-3.4
	연 기 군	3.5-3.11
	공 주 군	3.12-3.23
	청 양 군	3.24-3.31
	서 천 군	4.1-4.11
	보 령 군	4.13-4.28
	홍 주 시	4.29-5.12
	홍 주 시	5.13-5.14
	대 천 출 장 소	5.15-5.23
	유성 출장소	5.25-5.26
	〃 동 구	5.27-6.3
	논 산 군	6.4-6.24
	금 산 군	9.14-9.22
	대 덕 군	9.23-9.30
	보 령 시	6.26-7.6
	부 여 군	7.7-7.15
	홍 성 군	7.10-7.25
	서 산 군	8.5-8.28
	당 진 군	8.31-9.12
충청남도	용 인 군	3.3-3.11
	안 성 군	3.12-3.20
	이 천 군	3.21-3.23
	여 주 군	3.30-4.3
	광 주 군	4.4-4.9
	평 택 군	4.10-4.27
	안 주 군	4.28-5.11
	남 원 군	5.12-5.22
	전 주 시	5.23-6.3
	전 주 시	6.4-6.15
	군 산 시	6.16-6.20
	김 제 군	6.22-6.24
	이 리 시	6.25-6.30
	진 안 군	7.1-7.8
	금 제 군	7.9-7.25
	부 안 군	8.5-8.17
	남 원 시	8.18-8.19
	고 창 군	8.20-9.3
	달 양 군	3.3-3.12
	무 주 군	3.13-3.18
	장 수 군	3.19-3.26
	임 실 군	3.27-4.7
	순 창 군	4.8-4.17
	정 읍 군	4.20-4.30
	김 제 군	5.1-5.9
광주직할시·전라남도	광 주 동 구	5.11-5.16
	〃 서 구	5.18-5.23
	〃 북 구	5.25-5.30
	나 주 시	6.1-6.3
	송 정 시	6.4-6.5
	순 천 시	8.8-6.11
	승 주 군	6.12-6.24
	광 양 읍	6.25-7.4
	광 양 군	7.6-7.14
	장 성 군	7.15-7.25
	영 광 군	8.5-8.11
	나 주 군	8.12-8.22
	함 평 군	8.24-9.2
	진 도 군	9.3-9.17
	완 도 군	3.17-3.25
	해 남 군	3.26-4.11
	완 도 군	4.13-4.25
	신 안 군	4.27-5.4
	고 흥 군	5.5-5.23
	보 성 군	5.25-6.13
	광 양 군	6.15-6.22
	광양 출장소	6.23-6.24
	여 수 시	6.25-7.1
	여 천 군	7.2-7.13
	여 천 시	7.14-7.16
전라북도	서 귀 포 시	7.20-7.23
	제 주 군	7.24-8.11
	제 주 시	8.12-8.19
제주도	북 제 주 군	8.20-8.29

1. 징병검사 대상자
○'68년1월1일~'68년12월31일 출생자(19세)
○기타 연기사유가 해소되거나 연기 기간이 끝난자
2. 거주지 징병검사 출원안내
○출원대상 : 본적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사람
○출원기일 : 거주지 구·시·군 징병검사 개시30일전까지
○출원서류 : 거주지 징병검사 사무소 및 본적지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첨부)
○출원관서 :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3. 징병검사 연기대상

연기대상	처리절차	참고사항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시·도 교육감및 대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하여 처리(단, 대학이상은 계한연령 내에 졸업이가능한자)	○계한연령 전문대학 : 22세이내 졸업이 가능한자 대 학 : 24세 이내에 〃 대 학원 : 26세 이내에 〃 ※연기된자는 졸업하는 전해에 징병검사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지방병무청장의 출국 허가에 의하여 연기	○23세까지 연기
○법죄로 구속 또는 복역중에 있는자	○구속확인서, 수형인명표 또는 재소증명서에 의하여 연기	○구속 또는 재감중 연기
○질병중이거나 중병인 가족 간호중	○징병검사 기일 5일전까지 진단서등 출원에 의하여 연기	○일원 또는 간호기간중 연기

- 재학사유로 징병검사 연기를 받을 사람이 징병검사 통지를 받은경우에는 본적지 읍·시·동·면장에게 재학사유신고 (전화 또는 우편도 가능)
- 재학사유로 연기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재학중 입영을 원할때에는 재학생 징병검사원 (이미 징병검사를 받은 자는 입영통지)를 본적지구·시·읍·면에 출원
※조기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부자유 휴학을 할경우 군입영계획인원의 제약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어려우니 기간단산의 곤때만을 자초하는 결과가 됨을 유의하기기 바람.
4. 가사사정에 의한 보충역 편입대상자 및 구비서류

보충역편입대상	구비서류	출원기일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보충역편입원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징병검사기일 14일전까지 거주지 구·시·읍·면에 제출하고 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2.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		
3.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보충역편입원서 1부	징병검사기일 14일전까지 본적지 구·시·읍·면에 제출하고 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4. 형사·손직 또는 상이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사설

정당정치와 민주화의 과제

—진정한 정당정치의 존립은 민의를 바탕으로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라함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하며, 국회라는 장을 통해 행정부의 입의적·독단적 정책수행을 배제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이는 당연히 「정당한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국민적 지지기반이 전제되며,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정당의 필요성은 성립된다. 더우기 이러한 역할실현을 위한 중대 한 관점은 민주주의로 향해진 기본적 종토의 마련과, 민의를 어렵게 알고 경손히 받아들일줄 아는 위정자의 자세가 기본적 조건이 된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민의는 위정자의 집권욕을 채우는데 일조하는 「수단적 차원」으로 전락하게 마련이며, 정당정치는 권력의 강권행사에 좌지우지되는 무가치한 요식행위로 밖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수십년간의 군부정치를 종식시키고, 진정 민(民)으로 향해진 민주화를 열망하는 요구가 치열히 표출된 이후, 정부여당은 아직도 현 집권층의 영향력행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내각제안을 생명줄처럼 고수하고 있기만 하다.

반면 제도야당인 신민당은 최근 분열과 파당의 조짐까지보이는 극한 대립을 계속하다가 쌍방간의 대종의 합의를 이루면서 이른바 극적타결을 보았다고 대서특필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민당이 그간의 분열과 한계성을 극복하고 통일된 실천력으로 국민적 의지를 대변해 나갈 수 있는 일정한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담담함에 시달려온 국민들도 적지않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극적타결에 있어 내부적 배경과 쌍방간의 이해합리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는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극적타결의 결과물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수 있는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 그것은 직선제나 선민주화론의 대립의 근원지자체가 민의와는 무관한 소모적 싸움일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애초부터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는 논(論) 이 어떤 것인가라는 논란에서가 아니라, 세력판도의 장악을 위한 처세적 당론제시의 의미, 그 이상을 띠지못한다는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결국 민주화와 민족자주화 수립이라는 절대명제와 거리가 먼, 하등의 의미없는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새삼스레 이러한 정치현실을 개탄할일도 전혀 못된다. 강권만이 판을 도모하고, 집권욕만을 불사르는 위정자들에 의해 더럽혀진 오욕에 찬 헌정사가 너무도 길었던 이유에서다. 다시금 생각해본다. 이땅의 실추한 역사의 대계와 소외된 삶의 현실을 바로 골추 세울 사람들은;권력에 의해 깊이 상처입고 버려진 이땅의 민중들 자신일수 밖에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실로 오랜동안 가슴속에 묻어두기만 하지 않았던가.

오늘 벌어지는 위정자들의 민의를도외시한 형태를 주시하면서 고통받는 민중들 그 자신의 확고한 의지만이 얼어붙은 동토를 일구어나갈 새힘이라는;사실을 되새겨 본다 이땅의 민주화의 씨앗은 민주화를 위해 숨찬삶을 진통해야했던 확하고 성실한 사람들에 의해 돋아날 것이다.

미국의 대(對)북한정책의 변화배경과 한반도

김 성 환 (前지양사 편집부장)

1. 미국의 접증하는 대(對)한반도 관심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이 결코 작은것이 아니라 「사활적인(Vital)」 것임은 이미 주지되고 있는 바이지만 그것이 군사적 이익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경제적 이익에서 기인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론 (異論) 이 분분해왔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기지를 설치 또는 설치준비중이라는 것은 머 이상 비밀이 아니며 (이미 미 의회의 청문회에서 밝혀진바 있음) 자금의 한국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에서 한반도에 걸린 경제적 이익이 사소한 것이 아님도 밝혀지고 있다.

얼마전 솔츠의 방한때 언론은 미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국 정치정세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온통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솔츠의 방한때 미국의 대(對)북한 외교정책의 일정한 변화도 논의되었음은 국내 정치 문제에 가리워져 별로 알려지지 않았었다. 결국 미국에서 발표된 미국의 대북한 외교정책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충격적이었다. 즉 이전에는 미국 외교관이 북한 외교관과 접촉할때 의례적인 인사 이외의 접촉을 금지했었는데이제는 그것을 해제하고 실질적인 대화와 협의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북한의 88년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올림픽에 참가하도록 권유하고 또 그 문제를 남북한당사자가 직접 협의하도록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올림픽이라는 체육행사가 미국의 국익에는 어떠한 이득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일찌기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라는 정치적이유로 미국 자신의 올림픽을 보이콧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단지 한국을 지원해 주기 위해 88년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도록 자국의 외교지침을 수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박한 사고이다.

따라서 비록 국제적 지위가 이전에 비해 약화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본주의 진영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중심 을 파악해보고 그로부터 개개의 현상들을 해석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2. 미국 세계전략

미국의 세계전략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사회주의 세력의 중심부인 소련의 봉쇄, 포위 전략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에 있어서 주변부 또는 주변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제3세계에 대해서는 반(反)혁명 또는 예방혁명 전략을 관철시키는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유럽, 서남 아시아, 동아시아에 걸쳐방대한 국경선을 형성하고 있는 소련을 바로 그 국경선에서부터 포위, 봉쇄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은 유럽에 있어서는 나토 (NATO) 라는 강력한 군사동맹을 축으로 핵무기의 장벽을 쌓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동및 남아시아에 있어서는 친미국가를 형성하려고 끈질긴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중동에서의 강력한 친미 국가였던 이란이 혁명에 의해 붕괴되고 아울러 인접한 아프가니스탄으로 소련군이 진주해들어왔을때 미국이 겪은 당혹감과 위기감은 엄청난 것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모스크바 올림픽불참이라는 강경책으로 표출되게 된 기본 근거였던 것이다.

중동에서 아랍민족국가들에게 사면초가가 되어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독한지원을 견지하는 것, 테바논에의 이른바 『평화유지군』 파견, 리비아에 대한 직접 폭격, 페르시아만확보를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 등이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것이다.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강력한 사회주의 세력인중공을 소련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 미국의 중요한정책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또 하나 중요한내용은 제3세계 국가들이 1760년대 이래 점진적으로 사회주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어 들어가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다.

제3세계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 자본과의 결합 정도가 그렇게 고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미국 자본과의 단절로 인한 경제체제의 마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반면에 제3세계 국가들의 국내 계급적 모순은 이중적 압박상태에 있기때문에이른바혁명의가능성이상존한다.

따라서 미국은 제3세계 국가들이 혁명을 통해 친사회주의 세력화되어 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점에 있어서 특히 미국의 이해가 걸린지역이 중남미이다. 이 지역은 역으로 미국의 국경에 인접하여 있는 미국의 「裏마당」이기 때문에 일찌기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보였던 바와 같이 미국의 대응은 강력하다. 니카라구아 반군(콘트라)에 대한 물질, 외교적 지원이라든지 심지어는 인접 지역에의 직접 침공 테러등이 그것이다. 이것이미국의 대 (對) 제3세계 반(反)혁명전략이다.

한편 남미 제국이라든지 아시아, 아프리카의 친미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미국의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한 소련의 역대외 위협성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개입보다는 온밀한 조정을 통한 혁명 예방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바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대상에 속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3. 미국의대(對)한반도정책

미국의 대 (對) 한반도 정책도의 지리적 영향력을 과시해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이 정책상의 중심고리였다。

이 남한으로부터의 미군 철수는 미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적화 내지 한반도에서의 분쟁격화라는 달갑지 않은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듯하다。 따라서 미국은 미—일—한이라는 이른바 소삼각체제를구성하여 북한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북한이라는 존재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의 「눈의 가시」와 같은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분쟁이 발발했을 경우 기존의 북한의 등거리 외교정책으로 볼때 중·소 어느쪽도 북한을 지원하지 않고서는 배겨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것이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한반도가현재의 상태로 안정화 (Stabi-lization) 되는 것이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주도에 의한 사회주의권 불참 또는 한반도 긴장격화등의 상황이 발생할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정면으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더구나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부 정치상황의 격화가 이에 작용할때 상황은 미국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는 이미 미국이 필리핀에서 경험한 곤혹과는 또 다른 성질의 것일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① 한국 내부정세에 있어서는필연적계급 대립 상황의격차를 억지, 완화시키는 한편 ②북한의 즐기찬 요구인 미국과의 직접 대화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소련권으로부터의 이탈을 도모한다는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4. 우리의 대응 방향

미국이 우리에게 시혜를 베풀어 주는 온인이라는 철없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미국의 대 (對) 한반도 정책은 분명하게 자국의 이해 관철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더, 이것이 남북분단의 영구고착화와 반민주화로 결과될 위험성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우리는 이러한 강자논리의 국제정치의 현실을 주체적으로 활용해나가야한다。

또한 남북의 상이한 양체제권의 국복의 전제조건으로서 민족자주를 수립, 민주화가 필연적으로 달성되어야하며, 미국측의 자본제체제 편입·교수를통한 더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어서도 안될것이다。

반반도 상황을 직시하는 냉철한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과의 실질적 대화와 협의허용등
접촉의 폭을 다각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88올림픽·현정세와 관련,향후 추이 주목돼

대 북한정책 변화는 자본제적·군사적이익을
고수하려는 목적의 대소 방위선 구축전략
분단의 영구고착화로 결과될 위험성 높아

미디어와 화법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인간을 동물과 분리해서 「이성적동물」 「사회적동물」 「도구를 사용하는동물」 등이라 명명하여 인간과 동물을 적절하게 구분지어 왔다。 분명 인간이 그저 살아 숨만 쉰다면 식물과 다를바 없으며, 의식이 없이 본능에 산다면 짐승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거대한 자연앞에서 적응, 도전함과 동시에 환경을 개척하여 역사와 문화를 이룩해 왔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획기적 변혁을 이룩한 인간외지는 실로 인간을 인간이게 한 위대한 혁명이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사고하는 사람> 으로서, 또한 협위자로서 생명이 보장된 바탕위에서 비로소 「살아나가다」는 의식적이고 등적인 활동을 필할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껏 삶과 대립하는 죽음 사이에 관계를 수립하려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왔던 것이다。 그와더불어 인간은 고귀한 삶을 종요롭게 하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였다。 이러한인간의 생태적인 욕구 「휴머니즘」은 역사속의 인간을 결집시키는힘을갖게하였다。

▲현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한 가지만 고르라면 우리들 모두는 「비인간화」라 할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현실 일각에서는 허위와 기만이 판을치는 살벌하고 각박한 인간관계 속에서 압박과 투쟁이 격화되고 있음에서다。 그리고 비인간화는 우리들을 혼탁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역사를 말하고 인간에 내재한 역사적 가치를 찬탄해마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이순간 인간이 존재하기 까지 치뤄진 온갖 진통의 과정과 피눈물이 가장 사랑다운 모습을 발견하고자 했던 지난한 흠부림임을 뼈저리게 알이리라。

인간화의 외침

언젠가 어떤이는 어들고 당당하여 가슴이 터질것 같은 현실세상을 보며 『이제는 영원히 신음 소리와 투기력의 그림자를 우리인간사회에서 추방해야한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사랑과 양심을 찾는 전주곡을 울린바있다。

▲오늘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채 강제되어진 「비인간화」는 자기 중심적이게 하거나 현실도피적인 인간을 만들고있다。 그렇지만, 인간이 인간인이상 「인간화」에 대한 열망은 멈춰질수 없는것이며 그것은 사회변혁을 위한 실천적인 방향을제시하게 되는것이다。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작금의 구조속에서도 변혁을 위한 격앙의 숨소리는 처절하리만큼 아름다운 진정한 인간양심의 회복일을 확신한다。 <양>

AFKN TV·미국영화 도대체 왜 안들릴까?
그 해답을 제시한다.

본 문화센타에서는 大學生 및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을 위하여 주말 英語会話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읍니다. 세련된 고급 수준의 회화능력은 물론 AFKN 방송이나 미국 영화를 자막 없이 감상할 수 있는 진정한 어학실력을 배양코저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연수기간 : 6개월(1987년 4월 4일~10월 4일)

TO: All Students Desiring To Learn English:
Are you really trying to learn English, to be a fluent English speaker?
If your answer is yes, then do not hesitate to knock on the door of the AFKN/Screen English Study Society (ASESS).
The doors of ASESS are always open to you and we welcome you to join our club at anytime.
George Yun

★연수교재 :
①General Hospital
②Donahue
③Comedy Shop
④Paper Chase (하바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⑤Dallas
⑥Silver Spoon
⑦AFKN News Collections
⑧Time Cover Story
⑨Johnny Carson Show

공 개 강 : 87년3월 22일(日) 오후2시
◎장 소 : 본 문화센타 시청각실
★대 상 : 大学生, 성인, 직장인, 이민 또는 해외유학 및 취업 예정자
※특히 각대학AFKN, TIME 영어 회화세클회원들의 일차청강 요망
★강의시간 : 매주 土, 日 17 : 00~19 : 00 19 : 00~21 : 00 (주240분)
★★★ 회원을 위한 특전 ★★★
1. 교재 및 대본 수록된 TAPE 무료제공
2. 매주 일요일 시청각실 무료 개방(AFKN News 및 미국 영화 상영)
3. 필요한 회원에게 文法, 독해강좌 실시
교육사무국직통전화 : 797-8891·8892·3121

基督教新聞문화센터
CHRISTIAN NEWSPAPER CULTURAL CENTER
육군본부옆 CNCC 문화센타 B/D 1층

대학생을 위한
情報處理技士 1급특강 (1987년도 시행)

개강 1차 : 12월15일(6주 : 오후반)
2차 : 1월5일(6주 : 오후, 야간반)

※ 전공에 관계없이 응시할수 있음.
■ 수치해석(1주), 통계(1주)에 중점을 두어 각과목 1주 완성.
■ 과년도 문제 철저 분석 강의
■ 저자직강(학원 강사진의 교재편찬) 情報處理技士問題詳解(4.6배판)
■ 기사 1급소지자 군전산병 입대우선

SPSS 처리 및 특강
• 저렴한 가격으로 통계처리 • 사용방법특강
주식회사 민컴 사업부 : 735-0211~5

동계방학특별언어특강(12,1,2월)
과목 : PASCAL, C, PL/I (매월 첫주 월요일 개강)
실습기종 : PRIME 750

정규프로그래밍과정 (새벽, 오전, 오후, 야간)
• EDPS • COBOL-I • FORTRAN • ASSEMBLY
• IOCS • COBOL-II • 실무실습 • BASIC
개강 : 매월 첫주 월요일(각과정 1개월)

서울735-0211~5 (종로2가 YMCA 후문앞)
인천73-7383,74-8915 (동인천역 축현국교앞)

원장 민 경 현
Ω 서울컴퓨터학원

학 군/단 기 사 관 장 학 생 모 집

○모집인원 : ○○○명
○지원자격
• 4년제대학 신입생
• '67.1.1~71.1.1. 출생자
• 장교 임관 결격 사유가 없는자
○지원서교부및 접수
• 기 간 : 2.18~3.21(학군단 행정실)
• 구비서류

1차 (지원시)	2차(신체검사시)
○지원서 및 서약서 각1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2부
○대학입학증명 증명서 1부	○재정증명서 : 납세필 인감증명서 각1부
○사진 (4×5센티) 2매	○사진 (4×5센티) 3매

• 선발절차
• 1차 : 서류전형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 2차 : 신체검사
○합격자발표 : '87.6.2
○의무복무기간 : 학군 6년 3개월, 단기사관 7년
○특 전
•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지급 (연간1,148,000원)
• 장기 복무자 우선선발
• 전공분야활용, 전역후 직업 보도실시
• 대기업체 우선선발 및 취우
○문 의 처 : 학군단본부 (전화)962—7124, 교환2412)

제119학생군사교육단장

공 고

1987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추가등록금 수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등록기간 : 1987년 3월 18일(수)부터 1987년 3월 26일(목)까지
2. 등록장소 : 제일은행 본점 및 각지점 (단, 용자학생은 국민은행에 납부가능함)
3. 등록금액 : 등록금 통지서 참조
4. 등록금통지서 : 현 거주지로 기 발송

참 고 : 1. 추후 등록 일체 없음
2. 현 거주지가 변경된 학생은 해당 단과대학 교학과에 신청바람
3. 분실자, 9회이상 등록및 복학자는 학적과나 경리과에서 별도수령

1987년 3월 일

재 무 처 장

사회주의의 이해를 위하여 <1>

소련 정치·경제개혁의 흐름 —연재를 시작하며

Ⅰ. 들어가는 말

올해로 세계사에 커다란 변화를 동반시켰던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한지 70년이 된다.

또한 한국의 경우 남북분단의"아픔을 필감하며 보내야 했던 세월도 큰 반세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민족적 비운의 경험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또하나의 장벽을 만들어 주게되었다. 이는 『소위 Red—Complex라는 것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그 어떠한 긍정적인면에 대한 평가도 금기시하는 현상의 만연으로 대변될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체제에 있어서는 전일 (全一) 적인 자본주의도 있지않으며 또한 전일적인 사회주의도 있지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명심해봐야 할 일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과거의 쓰린 고통만을 씹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협한 이데올로기스트가 되어가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체계가 양분되어진 상황하의 민족적분단의 문제는 서로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분단의 해결에 대한 단초가 제시되어질 것이다.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어떤체제가 우월하다는 사실의 확증을 얻으려면 (사회발전을 위한 지향점의 모색으로서) 양체제에 대한 비판적이고 냉철한 관단의 가치기준은 설정되어야한다.

따라서 이번기획의 본질적의도는 현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과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 그와 더불어 한국사회에 있어 도움이 된다면 필수있는 점들을 조망해 보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볼수있다. (단 현 사회주의체제라고는 하지만 일일히 말해 소련의 정책에 대한 효름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Ⅱ. 소련의 경제계획 결정과정

소련의 경제계획은 거시적계획에서 미시적 계획에 까지 이르고 있어 자본주의체제하의시장기구의 역할을 정부당국이직접수행하는 상황에서 작성된다.

계획작업의 개시는 처음에는 중앙당국의 책임이었으나 1959년경부터는 중앙당국과 말단기업이 통시에 계획작성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왔다. 급년도의 계획은 전년도 (前年度) 에 작성되며 계획에 사용되는 자료는 전전년도 (前前年度) 의 수치가되는것이다. 정부는 매년 계획작성준비의 지령을 내리며 하급기관이 지켜야할 규칙을 정한다.

기업은 전년도의 실적, 금년도계획, 자신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차년도의 계획초안을 작성한다. 그속에는 생산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데필요한 요구사항이 포함된다.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소연방국가계획위원회 (연방gosplan) 는 그통제수자—기초계획수자작성에 착수한다. 그것은 당과 정부가 결정한 정치·경제적입무에 따라 중요한 제률젊의 생산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 개별적률젊의 수급관계가 결정된다.

경제계획작성에는 약2가지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하나는 단속적 (繼續的) 계획방법과다른하나는 경제발전의 비례성준수라는 문제이다.

단속적계획방법이란 경제활동이 연속된 것이며 기술진보나 신자원의 개발등에 따라 변화하기때문에 그 특수성을 보증하기 위해 차 (次) 년도 계획의 근본적 특징은 후속년차 (次) 에 충분히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년차계획은 동시에 5년후의 경제성장의 주요목표가 설정되어야하며 각년차계획은 1년에 한정되지않는 1년을 포함한 2개년 계획이다.

경제발전의 비례성준수라는 문제는 경제발전에 따라 비례성이 수정돼야 한다는 것으로 그 우선의 정도 (개발전략에 있어서) 는 경제발전의 단계와 더불어 변화해야 한다고 한다. 이 정도에 따라서 공업·농업발전사이에 비례성과 저축과 소비, 생산과 저축, 소득과 노동생산성사이의 비례성이 결정된다.

또한 계획완성에 있어서는 말단기업에 대한 자료가 공화국고스플랜 (성 (省) 에서 자료를 접수) 에 전달되고 또이 무렵까지는 연방고스플랜에서 작성한 통제수치가 전달되어 이에 따라 작성하여 일반계획을 작성한다.

완성된 공화국계획은 연방고스플랜에 보내지고 전연방의 계획안은 연방고스플랜에 의해 작성되며 이시기에 수정을 가하여 공식적으로 소련각료회의를 거쳐 연방최고회의 (소비에트) 의 확인을 받는다.

Ⅲ. 혁명이후 소련의 정치·경제사적 흐름

주지하듯이 1917년의 10월혁명이후 소련이 당면한 문제는 실로 엄청났다.

국내적으로 체제정비의 문제와 혁명이후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만한 국가기구의 부재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세력과의 대립이 크게 부각되었다.

러시아가 사회주의화함에따라 러시아에 침투해왔던 제국주의열강들의 자본은 투자자본에대한 이윤획득이 불투명해지자 러시아국내에 대한 반혁명세력에대한 지원과 소련에대한 무력간섭정책을 폈다. 이에따라 1918년 여름부터는 외국간섭에의한 국내전이 벌어졌고 소련은 공업의 국유화, 식량할당징발제및 전반적노동의무제등을 기초로전시공산주의체제는 1917년부터 1921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기간중 국민경제는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져 1920년말의 대공업생산액은 1913년에 비해 71%로 축소되고 농작물의 총수확고는 전전(前戰)의 반으로 줄어든다.

그런이유로 국내전의 종결과 더불어 1921년 3월 부터는 신경제정책 (New Economic Policy==NEP)이 보여졌는데 그 주된내용은 농업에 있어서 식량할당징발제를 현물세로, 토지의 근로 소작및 고용노동의 부분적 허용등이었고 공업에 있어서는 20인 이하의 고용인을 둔 기업의 국유화폐지, 외국자본의 부분적도입, 기업의 독립채산제로의 이행등이었다.

물론 이와같은 정책에 있어서는 기업자율권의 범위확산문제가 아닌실질적인 당기능에있어 국가관료기구나 비밀경찰등의 역할강화에따른 상대적경시) 등은 스탈린시후 숱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전시공산주의(1917~1921) 와 신경제정책(1921~1926) 을 거치는 시기속에서 등장한 문제와 자본주의 국가와의 역학관계에 있어서의 중공업우선정책의 채택은 당시의역학적관계를 고려해보았을때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보여진다.

스탈린이후에 등장한 지도자들은 그 정책에있어 비교적 궤를 같이하는것들로 스탈린에대한 반기를 들었다. 이러한 정책들의 기본적입장은 사회주의 체제의 일정한 완성 (?) 이라는 전제가 기조된다.

후르시쵸프는 스탈린 격하운동과 더불어 「사회주의로의 평화로운길(Peaceful Road to Socialism)」이라는 사회주의이행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면서 기존의 전쟁불가피론이나 자본주의포위이론등을 사실상 수정하였다. 그 내용은 순수히 경제적결정의 차원에서이해될수 있는것으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은 자연히 자본주의 제국을 사회주의화함으로서는 비군사적수단으로서의 혁명수출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평화공존이론은 노선의 수정에 따른 중공의 소련붙럭으로부터의 이탈과 경제적불황등으로비판을 받게되었다. 특히 군부와 산업관료및 당의 강경파는 그의 노선을 「소비자 공산주의」라고 비판하고 중공업우선정책및 이데올로기의 고양을 주장했다. 1961년 제22차 소련공산당대회를 계기로 중소분쟁은 돌이킬수없게 비화되었고 1962년 쿠바에서의 후퇴 그리고 1963년 흐루자 이에따른 제국에서의 곡물수입은 후르시쵸프반대파를 연합시켰다.

후르시쵸프가 물러난후 소련은 집단지도체제로 복귀되었는데 이때부터 브레즈네프, 수상 코시긴및 국가원수 포드고르니의 삼두체제가 형성되었을뿐아니라 당 정치국이 하나의 협의체적 집단으로서 소련정치를 이끌어 나갔다.

브레즈네프는 후르시쵸프의 소극적평화공존이론에서 탈피, 이른바 적극적평화공존이론을 펼치기시작했다. 즉 핵위협에 따른 평화공존이라는 것에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자 철저한 핵균형에 따른 평화공존만이 가능하다고 판단, 메탕트정책과 더불어 제 3세계에대한 지원이 대규모로 공여된다.

그러나 적극적 평화공존이론은 당시 깊이 관여되었다고 할수 있다.

또한 자본주의 세력과의 대등한 대결을 위해서 사회주의 입장에서 개혁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판단되어진다.

경제개발전략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형태들을), 개혁이라고 보는것이 옳은가, 근대화라고 보는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수있는데 여기서 동질의 의미로 사용하고자한다. 사회주의 경제가 도입하고 있는 인센티브 (incentive) 의 분야는 소련의 기본입장이 사회주의공주국으로서의 역할을 차치하고라도 사회주의 진화 (일국적) 과 더불어 자본의 문제 (==생산력의 고도한 발전) 를 동시적으로 해결해야할 2중적 책임이 있는것이었기에 현재에 나타나는 일련의 형태들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개혁」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2가지의 입장으로 표현된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의 폐쇄성때문에 인센티브가 없고 따라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것은 필연적이며 이는 개방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게한다는 것이다.

둘째, 중공업위주의 경제정책이 성공하여 이제는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욕구를 충족시킬만큼 공업기반이 확립되었다는 인식을 기초로 균형있는 산업발전 (소비재산업부문의 활성화) 을 위하여 개혁 (개방) 을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장률둔화의 문제는 단지 체제적폐쇄성으로부터 연유되어진다고 하기보다는 자본의 유기적구성도가 높아짐에따라 경향적으로 이윤률이 하락하는 현상에서 비롯되어지는것으로의 파악이 바람직하다.

사실 사회주의 경제는 구미제국의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볼때 상당히 높은수준을 점하고 있었다. 그런데 1960년이후 경제성장률이 일반적으로 낮아지게되었고 고도의 공업수출에도 달한 국가들은 발전율의 저하가 현저하게 드러났다. 체코는 1956년~60년의 연평균증가율은 10.5%에서 1961~65년에는 5.2%로 동독은 9.2%에서 5.9%로 떨어졌다. 소련의 경우 계획경제의 초창기인 30년대에는 15%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50년대에는 6% 60년대에는 5% 70년대 4% 80년대 1.5%로 하락했다.

결국 이러한 전반적인 현상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민경제성숙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보는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러한것들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소련을 바라보는 모델로는 어떠한것이 적합할것인가의 여부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Ⅳ. 다루어야 할 문제들

70년이라는 기간이 역사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릴수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근자에 들어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개방」의 문제는 소련체제에 대한 새로운 평가(?)들을 내리려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소련은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일까? 포기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

여기서는 몇가지의 주제를 분류하여 혁명이후의 사실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볼까 한다.

먼저 분파성 (Sectism) 의문제로 소련의 정치·경제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가 검토되어져야 할것이다.

또한 엘리트충원패턴의 변화및 혁명이후 제속되어온 이념론자 (Ideologist) 와 기술관료 (technocrat) 의 갈등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지도자교체와 결부되면서 정책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현재의 고르바쵸프정권이 늘 탈만한 개혁 (?) —에를들어 지난 1월 기자붙법감금 혐의로 K·G·B고위간부가 해임된 일이나 얼마전에 있었던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간부선출에 있어서의 민주화제의등—을 혐하고 있는 이면에는 소련내부에 계속적으로 잔존해온 분파성의 문제가 상당히 깊이 관여되었다고 할수 있다.

이러한 조지개편은 결국 중요전략 부문에서는 고스톤탠을 축으로 중앙집권화에 의한 계획기능을 강화시키는대신 기타 분야에서는 성 (省) 및 중간관리층의 간섭을 배제하여 기업의 자주권 확대에 의한 분권적 관리체제를 지향하는 정책이라할수 있다.

Ⅴ. 맺음을 대신하여

소련의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은 생산체제의 효율성을 확보키 위한 능률적 관료제 제의 운영을 위한것으로 평가될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고르바쵸프의 개방정책으로 86년도 경제성장률은 4.1%로 상승했다.

스탈린이후 소련의 사회는 단지 전체주의적인 형태로만 분석을 하기에는 많은 난점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방면에서 다원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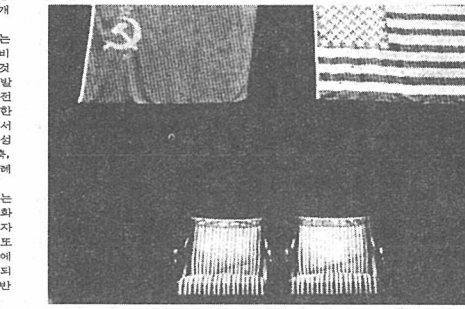
물론 일각에서는 결국 다원화의 경향이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서구식 민주주의와 탄압사이의 양자택일을 강요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러한 관단은 무책임한 단언들에 불과한것 같다.

다원화의 문제가 곧 민주주의의 관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금 소련의 글라스노스트 (개방) 정책은 대(對)소련정책이나 시각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며 새로운 대응방식 강구의 계기로도 볼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앞서 지적되어야할 점은 사회주의에 대한 편협한 선입관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서 이러한 편견때문에 우리의 여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재고가 있어야할듯싶다.

<학술부>

러시아의 사회주의는 자본회수 문제의 불투명을 노정, 제국주의에 의한 국내전을 야기
정치·경제개혁정책의 핵심은 기업자율권의 범위확산 문제가 아닌 각산업부문간의 타산업에 대한 발전 유인력이 중요관건



"새학기 선물은 東亞日報社의 良書로"

연속 증판을 거듭하는 東亞日報社의 베스트 셀러!

新刊 21세기의 세계 한국이 앞장선다 崔世瑄

韓完相 社會評論 역사의 벼랑끝에서 서다

●한국의 21세기를 꿰뚫어 제시한 문명예언서 / 著者특유의 史觀에 입각, 21세기 한국의 모습을 명쾌하게 예언한 과학적 미래론 / ●값 2,700원

●분단의 시대에 구조적 모순을 짊은 知識들과 함께 온몸으로 고뇌하고 아파하며 살아온 한 대학 교수가 토해내는 뜨거운 內聲! ●값 3,000원

革命이었던가, 野慾이었던가?
박정권 18년 그 권력의 내막 李鍾雨
독재, 폭민주, 폭민폭, 금력정치 등 갖가지 이두물으로 얼룩진 18년 총결산 ●값 3,500원

軍의 정신적 代父, 그의 評傳
참 軍人 李鍾贊 장군 姜聲才
"軍의 정치적 중립이부가 한국의 장래를 좌우할 것이다" ●값 3,500원

金成植교수 ●마지막 남긴 政治評論
쓴소리 곧은소리 ●값 4,000원
東亞日報 연재칼럼 (東亞時論) "대학교수 선비의 양심과 진실의 외침"

金東吉에세이집
한국여성에게 고함
날은 관습의 굴레에 갇히고 있는 여성들에게 비서는 충격적인 고백! / ●값 3,000원

시대의 선각자, 겨레의 길잡이!
仁村 金性洙 사상과 일화 ●값 2,500원
진실성! 민족주의자! 진실성! 민주주의자! 참으로 사람! 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남지심 이색불교소설
솔바람 물결소리 〈속편〉 연꽃을 피운들 ●각권 3,000원
자신의 생명이 소멸되어가는 순간에도 스님을 사랑하는 여교사의 애절한 사랑

새시대의 산지식 1986年版 사회과학부문 베스트셀러 3位!
현대시사 용어사전 ●값 4,500원
현대시사 용어사전
취직시험준비를 위한 필독의 참고서
●정치·경제·사회·문화·법률·과학·스포츠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3,800여 항목의 用語集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필요한 소백과사전
東亞日報社 ■ 서울 783-5472 ♣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최신敎育學特講 (上)(下) 권 第389回 講義記念!
敎育學博士 李大成 교수님 直講 녹음 카세트 테이프 판매중
敎育學特講 上·中·下 特1 발행 30번째 돌파記念!
中等敎師 校監昇進
中等敎師 順位考査·校監 昇進試驗 的中 대비
敎育學特講 上·中·下 카세트 內容 가격 안내
本 녹음카세트는 서울 YMCA 경기프로그램인 中等敎師班·初等敎師班·校監昇進班의 敎育學 교재인 最新 敎育學特講 (上)·(下) 권을 YMCA강당에서 700名 수강자에게 講義한 李大成 교수님이 직접 강의한 생생한 녹음테이프임.
※ 本 녹음카세트는 市販 없음. 따라서 本社에서만 판매함.
敎育學特講 (上) 카세트 10개 과목
교육기초·교육원리·교육사·교육철학·교육과정·교육심리·정신위생·학교 및 학급경영·교육제도·국민교육헌장·새마을교육·시사 및 일반교양(부록) 해방 이후 교육학 실제시험문제 및 정답 전부 수록.
▲현대 8,000원 ▲카세트 25개×3,000원 (개당) —75,000원 ▲송료 2,000원
敎育學特講 (下) 카세트 10개 과목
교수 및 학습지도·시청각교육·교육평가·생활지도·교육연구·학교와 지역사회·교육행정·장학론·교사론·교육법규·총합평가문제해설(부록) 해방이후 교육학 실제시험문제 및 정답 전부 수록.
▲현대 8,000원 ▲카세트 28개×3,000원 (개당) —84,000원 ▲송료 2,000원
구입방법 (녹음 카세트)
▲敎材: 전국서점 판매중!
(사무실) 서울·종로구 종로2가 YMCA 3층 312호 (우편대체) 계좌번호 010041-31-504316 종각출판사 (우체국이용) "110 서울광화문 우체국사서함 969호 종각출판사 앞"으로 소정의 금액을 "소액환" 이나 "통상환증서"로 만드셔서 등기로 우송하시면 즉시 카세트를 발송해 드림.
鍾閣出版社 ☎ 734-1161·739-5551 YMCA 3층 312호

YMCA
개강 매월 1일
英語·日語·中國語 佛語·獨語·漢文 中等敎師 (敎育學特講 敎育實習) 美國人 회화 무사 (회견시험)
TOEFL (New Horizon 회화 Voc. 2500 (언어실 회화) 공학석사 1, 2, 3기 (입영) 東京 YMCA 日本어 입문 초급 부급
70년전통 외국어교육의 전당
YMCA ☎ 732-8291·735-1400

밤과낮 연속착용 〈하이파Ⅱ 베스콘텐츠
한국소프트렌즈
734-9552
종로2가 12 (종일빌딩 3층)
부설: 의안제작

카텔
男·女 (여성기술자 부족)
정부인정정규학텔
(株) 한국해외사업지정 (국내단하나)
아간고등 (해년 계속 취업), 호텔 및 호텔 숙식 취업세인 = 서울↔LA 국제↔부산 = 직영
●LA 시청가 (시장, 美國처방증정)
●美, 게리슨계약 (여성)
●교부 (정규수료증, MSQ, 통학권 발급)
院長 김 호남: 양주학텔 著, 최종 심사 歷任
안내: 752-7244/7857
취업전용: 753-2858/부산: 42-1004
시 청: 중앙일보옥죽 (서소문 고가옆)
전문 관인 國際카텔 교육 학원

밤과낮 연속착용 〈하이파Ⅱ 베스콘텐츠
한국콘택트렌즈
733-6858
종로2가 75-8 (태극당옆)
부설: 의안제작

교육관계법과 교육현실의 문제

교육에대한 국가의통제, 행정우위현상은 안일하고 무비판적인 침묵을 요구하고있다.

이렇게 말하다

85년말 민중교육지사건 이후 86년5월10일 교육민주화 선언을 거쳐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민주화를 추구하려는 민주교사들에 대한 탄압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볼 수있다.

사회구조적 모순이 한층 더 심화되면 필수록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과 운동의 위상은 나날이 새로와진다. 이런 사상과 운동에 대항해서 여러가지 지배 이데올로기 공세 또한 무너져 내리는 체제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교육에 대한 지배권력의 강화를 중중주요한 방편으로 삼기도 한다.

현단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통제, 권력의 지배현상이 부각되는 교육관계법의 내용은 교육을 정치적 이용대상으로 파악, 무사안일하고 무비판적인 강요된 침묵을 요구하고 있다.

실사 현존하고 있는 법률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법을 적용시키는 당국의 주관적 유권해석으로 인해 현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고있는 교사들이 행정적불이익을 받고있는 사례가 야기되고있다. 또한 문교법전이나 공무원 인사규정등의 어느 구석에서도 그 법적근거를 찾을 수없는 조치들이 만연하고있는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작년 12월20일 민중민주교육선언교사들에게 해임과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린 서울시교육위원회 (이하 서울시교위) 가 이번에도 두렵의 교사에게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타도전출이라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강행했다.

타도전출, 해임, 정직등의 사건들을 보면서 일단 서울시교위가 문제삼았던 내용을 분석, 비판해 보기로 한다.

시교위가 문제삼았던 것중의 하나는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인 교육활동과 교과지도였다。 제출된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의 내용을 보면 수업시간에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의 사회적 배경과 현실사회상을 비교하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한 내용이 「지도교과와는 관련이 없는 자극적이고 비판적인 정치적 발언」이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동법 제56조) 「품위유지의 의무」 (동법 제63조) 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사건이 일어난 때의 당시 상황을 현실과 결부시켜 얘기함으써 학생들에게 민주의식과 사회현실을 깨닫게 하여 스스로 제권리를 찾아 인격을 도야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코자 했던 일임에도 불구, 이러한 현실성있는 교육을 교과과정이탈이나 현실왜곡비판이니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처리를 내린 것이다。 이같은 징계의 결과는 3.15와 같은 부정선거가 옳다는 얘기이고 4.19가 추구한 자유민주주의 이상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그저 정치적문제와 접맥되기만 하면 이와같은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현교육제도의 자기모순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업중 학생들의 「메모는 왜 일어나는것입니까」라는 질문에대해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향유되는 집회, 결사의 자유의 의미와 메모가 일어나게되는 사회적배경을 성실하게답해준 사실도 역시 비교육적인 행위라하여 문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시교위 당국이 말하는 교사의 「성실의의무」는 생물교사는 생물에관한지식만, 불어교사는 불어라는 단순한 언어만을 전달하는지식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을때만 책임을 다했다는 얘기라고밖에 설명이 안된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민주화를 요구하기 위한 각종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실도 문제시되고 있다。 그구체적인 예가 86년5월10일 YMCA중등교육자협의회의 「교육민주화선언」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명령이 무당해도 따라야 한다」는 어느교육관료의 말이나, 전보조치해당자들이 발령권자를 찾아가고 법적근거제시를 요구하자 「앞면서 필그러느냐」는 투로 내뱉는 망언을 보며 이제 이땅의교육행정이 더이상욕과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짐작할수 있다。

교사라는 직업은 비록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공무원의 사무활동과는 성질이 다른 교육활동을 해야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일반공무원의 「지배복종의 의무」를 그대로 교사의 교육활동에 적용시킬수는 없는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비민주적이고도 관료적인 교육정책은 교장·교감을 중심으로 학교관리체제를 고착화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 교사를 상명하복의 말단관료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받아들여질수밖에 없다。 주입제도 역시 동료교사를 감시, 통제하거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교사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며 그밖에 학급일지·교무수첩검열, 수업내용의 도청, 학습지도안 검열, 시험문제검열, 관제연수강화, 학생이나 동료교사를 통한 상호감시등의 상황속에서는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집단행위 금지」등의 복무규정이 교육의 민주화와 인간화교육을 지향하는 뜻있는 교사들을 처벌하는 주된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현재 교사에대한 인사이동(전보발령) 은 위와같은 법을 악용함으로해서 (사실상 법적근거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교육활동의 계속성과 교사의 단결에 대한 파괴수단이 되고있다。

교사들의 「과거」의 문제를 들춰내어서 주관적 조합해석으로 인사처리를 하는것이 사실상 「…현실에 있어서의 교육상 문제…」에 적용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처사를 내리고 있으며 그외에 부당한 목적으로 협해진 인사조치 (보복인사) 는 처분권의 남용임도서 위법이라 아니할수 없다。

위와같은 문제외에도 지금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등 현행법률과 각종규정을 내세워교사들의 기본적권리를 제한시키고 유린까지하는 작태가만용되고 있는것을 알수 있다。

지금과 같은 교육제도하에서는 교육이 국가의 통제,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날수없는 것이며, 이는 주로 교육내용에 대한개입을 주로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나권력의 지배는 교육기구를 「국가이데올로기의 전파수단」으로 이용하여,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유지를 수행해 내는데 십이분 활용하려는 처사로밖에 볼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교육행정이라는 법구조로 노골화되고있고 그 법적구속력의 횡렴이 만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에서 학교교육과 교육행정은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며 교육행정가 역시 상명하복의 관료체제를 그대로 교육 현장에까지 적용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창의력 신장이나 인간성 교육이 유보된 채 시험에만 능한 자만을 양산하는 비민주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육여건속에서 단편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지식청부업자」, 세금징수자가 되어버린 교사들의 빼앗긴 교권이 되찾아져야함은 물론이다。

이제, 끊임없이 흐르는 역사의 물결은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요구하는 이땅의 교사들, 현실을 직시하는 모든이들에게 머이상의 침묵과 굴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김향희기자>

갈은나라, 넋도 다를삶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는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집단이다。 우러러 칭송할만한 성인군자에서 세인의 지탄을 받는 악인까지, 혹은 경제사범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서까지 우유로 목욕하며 하인두고 산다는 장모여인같은 부유층에서부터 국제대회에 참석하는 외국인보기에 미관상 좋지않다는 이유로 집이 헐려 온몸으로 함거한 아들의 주검을 「관살 돈이없어 알몸으로 리어커에 실어 머나먼 구천으로 보냈다」고 눈물짓던 철거민어머니같은 가난한 사람까지 함께 뒤섞여 이루고있는 복잡다기한 운동체이다。

이런 사회에서 살고있는 인간은 누구나 명성이나 재산, 권력 혹은 육체적 안락과 정신적 행복등의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있다。 그러나 모두가 추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런 욕구들이 충족되어 지는 것은 아니다。

흔히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에맞는 댓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며 자신들의 현위치도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라 설명한다。 또한 신문방송에서는 항상 「라면만 먹고도 잘 뛰어 집도사고 밥도먹고 필수 있게된 소녀」와 같은 입지적이라 할수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필요이상으로 부각시키며, 우리나라도 올림픽만 무사히치르고 나면 누구나 자가용타며 좋은집에서 잘사는 선진국이 될 것처럼 떠들어 댄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머이상 믿을수 없다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하고 있는 바이다。

솔직한 말로 「못난사람」이 무조건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모두「잘사는사람」이된다면 이땅에는「못사는사람」은 필보없게될 것이다。 심오특세의 소녀가하루의 절반이상을혹독한 노동조건의 공장에서 기계와 씨름하면서도 사장님 하루 술값도 못되는 월급을 받는 것이그의 불성실만의 결과는 결코 아닐 것이다。 또한 농민이 일년삼백육십오일을 들판에서 땀을 흘려도 해마다「사상초유의 대풍」(?)에도 불구하고 결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역시 「게을렀다」는 말로써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3저호황이다」, 「무역흑자가 얼마나 났다」는 구호아래 언급되어지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액수보다는 주머니 푼돈을 헤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이런 현실에 더욱더 비감(悲感)을 느낄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에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복숨조차도 하찮게 취급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접할수 있다。 몇천원의 돈을 위해쉴인 일꾼이라하는등의 여러가지 국제행사에 엄청난 돈을 쓰는 나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철소차하나 개조하지 못하고 인력이 없어 전가족이 가장의 직업에 매달려 어두운 밤거리에 무방비로 방치돼야 하는지?그래서 1년에 3백명 이상이 거리에서 죽고 다쳐야 하는지는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않는 부분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천불을 넘고, 1년 수출액이 400억불을 넘으며, 농사는 해마다 풍작에, 물가는 한자리 숫자로 안정이 된다고하나 이처럼 민중의 삶은 점점더 정의·복지와는 멀어져만갔다。

아마도 절먹고 잘사는 사람들끼리 점점더 윤택하게,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되어가는것을 보고 모든 국민이 다그렇게 잘사는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기때문인것 같다。

우리는 이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이고, 이 정부가 어떻게 정권을 잡은 정부이며, 왜 이렇게 귀할 목숨들이 사라져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납득이 가지않는 현실을 접하면서도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나혼자서는 어쩔수없다」 는나약한 외심등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회는 계속 부패되고, 억울한 죽음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회의 변혁은 불의를 방조않는 민중의 결집된 힘의 행동이 시작될때만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 독재권력과 부패한 정권, 썩은 사회는 민중의 계속적인 묵인속에서 기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사회」 구호앞에 민중의 삶은 점점 더 정의·복지와 멀어져 가고

오늘의 이야기

홍 창 현

〈본보사회부장〉

용인 식당업주의 폭리

기자의 눈

지난 3월13일오후 1시 용인캠퍼스에서는 총학생회장 허성욱군을 비롯한 간부들이 어문대식당에서 식당업주 측에게「모든문영 사항을 공개하라」「순이익의 50%이상을 장학금으로 환원하라」「식당 종업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라」등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약 10분동안 농성을 벌였다。

점심을 먹기위해 줄을서있던 학생들을비롯해 식당안에서 이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학생들은 총학생회측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서반아어과 2학년 김모군은 『학교주변에 문화복지 시설이부족한 왕산의경우 대다수의학생들이 학교식당을 이용하고있다』 『학교식당의 음식이 질적으로 협련이없을뿐더러 특히어문대식당의 경우 다방과 혼재되어 공간이 매우부족하다』 며 『또한위생시설도 말이 아니다』 라고 학생들 공통의 고충을 피력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학기초에 총학생회가 외욕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모습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침언한다。

현재 용인캠퍼스 식당은 어문대, 기숙사, 교수 식당을 한업주가 독점,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음식의 질적인 문제, 비싼 가격, 위생시설미비등은 개인독점의 형태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싯점에서 문제시되는 사람들은 식당업주측의 학생들에대한 성실한 태도표명, 즉 음식의 질적향상, 가격의인하, 위생시설보완, 식당종업원의 처우개선, 그리고 삼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복지장학금의 지원등이 그 구체적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식당측에서는 금년 처음으로 복지장학금 명목으로 백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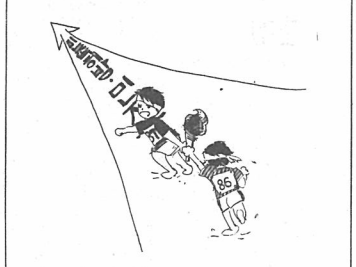
용인캠퍼스 설립이후 교통문제와 더불어 가장 고질적으로나타나는 식당문제는 예전의 총학생회에서도 그 해결을 위해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계획의 미비성, 자체 안일성등으로 인해 구체화되지 못했다。이에대해 허성욱 총학생회장은 『이년의 무계획적인 활동으로 인해 파생되던 과오를 금년 총학생회는 답습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 라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한편 총학생회는 자체적으로 식당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해 그 내용을 모든 왕산학우에게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에는 학교측과 업주측간에 맺은 계약관계도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여하튼 이번 총학생회의 식당문제에 관한 외욕적인 활동은 학생들에 대한 분위기와 신뢰감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되며, 이에 식당업주측의 성실한 답변과 학생들의 계속적인 참여및 총학생회의 계획성있고 밀도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이근기 기자>

외대만평



꺼지지 않는 횃불로…

흑백논리와 대학인

——신입생을 위한 제언<2>

1. 머리말

오늘 대학은 시대적 상황의 문제점을 극복키 위한 간단없는 「만인이 공유하는 진리」의 장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한 숱한 진통과 시련을 거듭하고 있다고볼수있다。 모순이 모순을 만들어내고, 이러한모순으로 인해 인간적 사고가 제약되고 굴절된 인간상이 양산되는 질곡의 생활을 거부하며 보다 나은 사회로의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추진력있는 실천성을 담지해 내려는 노력들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이같은 험난한 역사의 과정속에서 대학인들이 필연적으로 겪게되는 근본적 물음과 함께 현실을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서로간의 이질감 유발이라는 대학의 당면현실은 그것이 각자의 다양한 견해, 표현이라는데서 파생된 것이 아닌, 현 사회현실과 관련한 과학적 사회인식의 부족,실천성의 결여라는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실은 역사의 현장에 있는 대학인이 담보해야 할 기본 소명을 방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공유된 의식」을 바탕으로 한 대학공동체라는 지향점을 상정해볼 때, 대학인이 더불어 가져야 할 기본적 인식과 그에따른 합일된 실천방향을 제약하는 대학인간의 상이한 시각차는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당위적 명제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현실은 다기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글에서는 「흑백논리」의 현상을 통해 문제점에 접근하고자 한다。

2. 흑백논리의 의미와 사회구조적 발현

흑백논리는 말 그대로 이것 아니면 저것하는 식의 경직된 사고가 만들어낸 양분된선택의 논리를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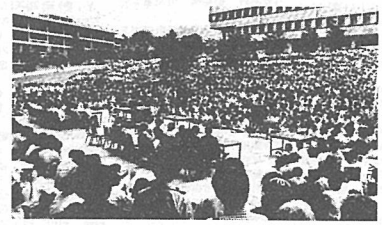
일종의 다양성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이 극도로 제한되거나 무시되는 것으로, 일방의 논리를 강제하는 성격을 띠는데 이는 획일화된 사회에서 만연한다。

흑백논리는 이견을 용납치 않고 정죄하는 율법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지는 결과를 드러내며, 다자간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그리고 이를통한 통합·조정기능을 상실케한다。

역사적으로 볼때 이러한 성격을 갖는 흑백논리는 강자의 지배논리만이 독식하고 군림하는 사회에서 횡행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는 보편적으로 지배이데올로기에의 측면적지원을 통해 개인적 자유를 무차별 유보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권력이 만인의 삶을 강제하는 엄연한 현실이 존속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순종하는 인간상을 양산하는데 봉사해 왔다。

권력과 부의 노예화를 촉진시켰으며, 가난은 노력않고 게을리 살아온 삶의 당연한 댓가일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각 층의 의사를 「정당성」이란 객관적 기준하에 수렴하는,민주적 사회여야함이 마땅할 것이다。



<사진은 서울대 국민대토론회의 모습 (85년 5월)>

그러나 양자와 의견이라는 것과 일정한 합치과정이라는 문제가 결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은 중요한 문제이다。

폐쇄된 사회에서의 흑백 논리는 경직되고 일방적인 사고를 강요

대학은 현시대의 당위적 명제와 이를 체화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해 나가야할 주체간의 갈등 표출

3. 회색주의와 중도통합론

이제까지 흑백논리의 사회구조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흑백논리란 어떻게 극다는 경쟁적이고 우월적인 사고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체제로인한 일방적 희생을 온폐하기위해 모두에게 동등한 자격과 기회가 주어져있으며 다양화되고 평등하다는 사회적 심리를 유발시켜 왔다。

강자독식의 경쟁논리는 역사를 배우고 학문을 습득하는 교실안에서도 예외일수 없었으며, 출세지향적인 사고는 건전한 사회풍토건설에 해악적 요소로 작용해왔다。

대학은 이러한 상황의 사회병리현상을 좌시하거나 방치할수 없다는 본원적 사명의식에 입각해 그 끊임없는 물짓을 계속해 왔으나 이역시 사회적 메카니즘에 의해 소위 맹목적 이상주의자, 현실을 도외시한 외골수 혁명분자로 취급되기일쑤였다。

우리사회를 이름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명명했을때, 이는 경직된 일방적 흑백논리사고가 존재하지않구체적으로 말해 A와 B의 의견이 제출되어 한집단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단지 A의 안(案)과 B의안에 대한 절대적 가치기준을 부여한 평가들로서 하나의 안을 채택한다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A와B가 한집단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나 실질적 역학관계가 머른작용을 한다는것 때문이다。

여기에서 희색주의에 대한 정의가 내려질수 있다。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회색은 어떤 뚜렷한 칼라(Colour=방향)를 갖는것이 아닌 다만 어둡침침함에 불과할 따름이다。 일단적으로 희색주의는 한집단에서 그 어떤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 판단여부를 주체적으로 드러내려 하지않으며 여러의견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어떤쪽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게 마련이다。

또한 이것이 양자와 의견을 절충했기때문에 (그 이유하나만으로)가장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보다 명확하며 과학적인 시각을 필요로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때의 의견절충이란 중국에 가서는 힘있는자의 논리 또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이기적논리관철을 위해 사용되기쉬우며, 이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최소한 간접적으로 비호하고있거나 지배질서의 부당성을 호도 또는 은폐시키는 역할을 하고있는것에 다름아 기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간접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위한 수단으로 작용해왔던것도 사실이었다。

한사회에 있어서의 독립된형태로는 위치나 실질적 역학관계가 머른작용을 한다는것 때문이다。

여기에서 희색주의에 대한 정의가 내려질수 있다。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회색은 어떤 뚜렷한 칼라(Colour=방향)를 갖는것이 아닌 다만 어둡침침함에 불과할 따름이다。 일단적으로 희색주의는 한집단에서 그 어떤 의견에 대해서 타당성 판단여부를 주체적으로 드러내려 하지않으며 여러의견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어떤쪽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게 마련이다。

또한 이것이 양자와 의견을 절충했기때문에 (그 이유하나만으로)가장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보다 명확하며 과학적인 시각을 필요로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때의 의견절충이란 중국에 가서는 힘있는자의 논리 또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이기적논리관철을 위해 사용되기쉬우며, 이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최소한 간접적으로 비호하고있거나 지배질서의 부당성을 호도 또는 은폐시키는 역할을 하고있는것에 다름아 기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간접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위한 수단으로 작용해왔던것도 사실이었다。

한사회에 있어서의 독립된형태로는 존재여부가 핵심적인 관건으로 부각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진정한 중도통합론이란 단지주어진 상황속에서 의견들조합해내는것이아닌 발전적인 사회변혁을 위해 의견들의 상호수렴이 건설적이며객관적으로이루어지는상황들을만들어가는것이라고파악할수있다。 물론 이때 일방적 실천성의 강제는 부의미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서로간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의 과정을 거쳐 합목적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공유해 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4. 대학인과 흑백논리

기본적으로 대학은 시대속에 부과된 당위의 명제를 수행하는 진리실천의 장으로서 기능해왔다。 그것은 학문연마란현실과 하나로된객관적 진리의 배움의 터전이 마련될때 그 학문적 가치가 인정될수 있으며 진리탐구역시 앎으로써 자족하는 진리가 아니라 사회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의 실현이 이루어질때 그 참의미가 있음을 각성하는 자세가 바탕이되어왔기 때문이다。

지난한 대학의 역사성은 이러한 보편타당하며 만인이 공유하는 객관적 진리실현의 과정에 다름아니었으며 이러한 대학은 모든 인간이 창조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하는 인간화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겪어오면서 대학은 현 시대의 당위적 명제와 이를 체화하고 자신의 삶을 결정해 나가야 할 주체간의 심한 갈등이 표출되어 왔다。

또한 흑백하고 획일화된 흑백논리의 현실이 배태시킨 많은 병폐가 잔존하는 사회속에서 대학인을 비롯한 다수의 민중들은 갈등하고 있다。

흑과 백이 혼동되는 현상에 본질이 매장되는 현실은 지금 우리에게는 보다 과학적이며 정확한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양성의 문제에 있어 개개인의 자유로운 사고는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동시대인이 공통적으로 뿌리박아야할 기본인식과 전체를 도외시한 다양성은 고립분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의 결과일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아래 고착된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과 무원칙한 다양성이 만연하고 있을뿐,진정 자유를게 말하고 의사를 밝혀 정당한 방향성을 찾아나가고 이에 합일된 노력을 기울이는 민주적 사고는 아직도 이땅에서는 요원한 과제인 듯하다。

한편 대학인의 역사적 소명과 각 주체의 과학적 사고·실천성등은 상호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인의 확고한 의지에 의해 상호보완되고 통일되어 나가는 과정일 따름이다。

쉽게 단정짓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실천적 능동태로서 규정하면서, 양립된 괴리감과 질곡을 끊임없이 극복해나가는 과정속에 해결의 열쇠는 주어져 있는것이다。

<학술부>

『우리 학교의 학문경향은 어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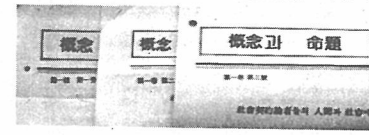
굳이 학문에 뜻을 두고 있지 않은 학생일지라도 한번쯤 던져볼만한 물음이다。 80년 7. 30교육개혁조치이후 종합대로 승격한 우리학교는 서기 2000년대를 내다보며 대규모 용인캠퍼스를 건설하고 있는등 외형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 양적 비대함에 비해 내용성을 제대로 채워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자못 회의적이다。 어학교대로서의 한계가 아직도 드러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학교의 연구풍토는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적절할 듯싶다。

희박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 연구풍토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땀을 일구고 있는 모임이 있어 찾아보았다。

「정치사학회」。

아직도 결음마 단계에 있는 이학회의 창설동기에 대해 김용진(본교 교양학부·비교정치)교수는 『우리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들이 자신이 연구한 분야를 발표할 수 있는 대외적인 장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같은 발표 창구를 만들 필요가 시급했었다』고 밝힌다。

사실 정치사학회는 별도로 존재하는 연구모임이 아니라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학회의 연구결과를 발표할수 있는 학술지를 펴내는 곳이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모두 정외과 학회의 주요 구성원들이며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개념과 명제」라는 학술지를 매월 1일 발행하고 있다。



「개념과 명제」。

제호(題號)만 보더라도 이 모임의 학문적 경향을 쉽게 짐작할수 있다。 정치 사회학의 한 관계자는 『개념이란 다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정치학의 기초 인식틀로서 정치학에서 쓰이는 용어의 의미 및 사용맥락에 관한 재검토를 뜻하는 것이며 명제는 이러한 개념정리 작업을 바탕으로 현존 정치현상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한다。 개념과 명제는 정치학을 비롯한 여타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대상으로 볼수 있겠다。

그동안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념과 명제」는 제3호의 발행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학술지의 주요 배포선은 본교 대학원의 정외과와 7개 지역연구학과, 또한 서울 시내 10개 대학의 정외과,정치학이나 행정학에 몸담고 있는 동문출신 교수들 등인데 총150부를 인쇄하여 우편발송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사학회의 회원들은 정치학이나 그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동문출신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김용진교수를 비롯해서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회원들도 8명에 이르고 있으며, 본교 박사과정에 있거나 강의를 맡고있는 강사들도 6명이 있다。 대학원생까지 포함한 이 모임의 총회원은 15명으로 학회치고는 비교적 조그마한 모임이다。

이 정치사학회의 연구주제는 다음 두가지로 나누어 전개된다。

첫째는 과학적인 정치이론의 구성을 위한 이론적 분석을 한다。 여기에는 인식론에 대한 연구,정치학의 제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 여러 협식이론들에 대한 연구작업이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둘째로는 기존 정치사상들에 대한 연구이다。 플라톤에서 밀에 이르는 학자들의 원전을 원문으로 독해하는 사상가별연구와 고대에서현대에 이르는 정치사상들에 대한 제개념들을 주제별로 묶어 연구하는 방법이 함께 병행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대학원 정외과 학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공동연구한 특정주제를 두고 정치사학회의 한 회원이 논문으로 작성한다。 논문발표자는 이 모임의 검토과정을 거친후 「개념과 명제」에 최종적으로 글을 싣게 된다。 발표된 논문은 학회의 세미나를 통해 상호비판을 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념과 명제」에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는 것도 이 모임의 학문적 경향을 가늠하는데 필요할 듯 싶다。 지난 1월1일자로 처음 발행된 부남철(본교 정외과강사)의 「맹자에 나타난 정치참여개념」은 조선조 지배엘리트의 정치적 신념체계에 영향을 준 유교경서중의 하나인 「맹자」에 나타난 정치참여 개념을 분석한것이다。

두번째 발표된 홍원표(본교 정외과 강사)의 「정치철학에 있어서 직접성과 참신성」은 정치철학의 전통형성에 핵심이 된 직접성과 참신성이란 개념의 의미를 밝히는 한편, 두 개념의 관계와 존재의미를 규명함으로써 정치철학의 연구정향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강태규(대학원 정외과)의 「사회계약론자들의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식」도 기본적인 제 개념들의 의미를 밝히는데 그 방향을 두고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세편의 논문들은 주로 정치학의 개념들에 대한분석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임의 근본 목적이 정치학적 기본개념분석과 그에 토대를 둔 정치학의 가설 검증에 있다고본다면 앞으로의 연구경향은 실증적인 접근의 방향으로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모임이 단순한 정치학의 개념분석업에만 머무르지 말고, 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논의로 진행되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현실분석의 연구에도 그 관심폭을 넓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사학회는 결성된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연구경향에 있어서도 뚜렷한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생적인 모임들이 많이 늘어남에따라 희박한 외대의 연구풍토가 풍요로와 질것같아 우리들에게는 이 모임에 대해 거는 기대가 자못크다

『우리 학교의 학문 활동(종토)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이렇다』라고 대답할 수있는 종토 조성을 위해 외대인 모두 열심히 노력해야 할것이다。

<이재효기자>

제5회 「외대학술상」 논문모집

고뇌하며 진실을 되뇌이는 여러 학형(學兄)들의 치열한모습들을 찾고있읍니다。 희박한 연구풍토에 꿋꿋이 살아 결실들을 보려는 노력은 암담한 현실속에서 면면히 이어져야 할것입니다。 이에 본보에서는 자그마한 도움이되고자 미진하나마 「외대학술상」을 마련하여 같이 호흡하는 뜨거운 가슴을 부대끼고자합니다。

학형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상 : 본교재학생

◇모집부문 : 사회과학분야 (80매~100매 내외)

인문과학분야 (〃)

자연과학분야 (〃)

◇주제 : 자유선택

◇접수처 : 서울—학생회관 학생기자실 (4309호)

용인—사회과학관 학생기자실 (4409호)

마감 5월30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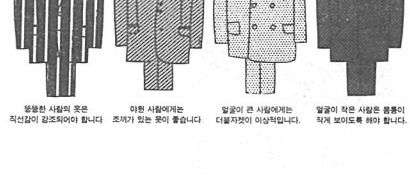
※단 접수된원고는 반환하지 않음니다。

외 대 학 보

이제 이런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입학을 맞아, 새 학기를 맞아 새롭게 펼쳐갈 대학생활에 학문과 자유와 진리가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겨울의 이런 바람이 아니더라도, 보다 큰 배움의 터전에 첫발을 내딛거나 한단계 높은 진리의 깊에 한걸음을 디 내딛게 되는 대학인이라면 누구나 싱그러운 꿈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새삼을 맞아 더 배우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겨울도 여러분과 다름없는 것이기에, 여러분에 더욱 큰 축복과 함께 뭔가 도움이 필연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캠프리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긴 도움 말씀이라 해봐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옷에 관한 것을 넘어설 수는 없읍니다. 하지만 옷에 관한 일은 저희의 전부인 동시에 여러분에도 꽤 요긴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저희가 건배드리는 이 작디작은 정보는, 어차피 사회에 나서면 늘 입어야 하고, 대학 생활속에서도 한벌쯤은 갖추어 둘 필요가 있는 신사복에 관한 것인만큼, 입어두시면 꽤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리라 믿읍니다.

'멋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선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얼마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거부감은 대개 멋장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 대하여 차림새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라거나 훤래 옷가지가 많은 사람들이라거나 또는 체격이 남달리 뛰어나, 아무 옷이나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나 하는식의 선입관을 갖는데서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이 멋장이라는 멋진 말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 멋장이가 비교적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리 흔하지도 않고 그들 모두가 멋장이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체형에 몇가지 결점이 있거나 옷이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도 옷차림의 기본적인 몇가지 법칙만 지켜주면 그에 못지않은 멋장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옷차림에 그리 세세한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자기체형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자기 연출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비록 가짓수가 적은 옷이라도 잘 어울리게 입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둥글한 사람의 옷은 직선깔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아핀 사람에게는 조끼가 있는 옷이 좋읍니다.

얼굴이 큰 사람에게는 더블자켓이 이상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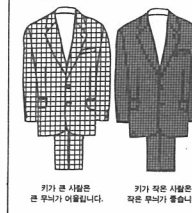
얼굴이 작은 사람은 몸통이 작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둥둥한 사람은 둔하고 느린듯한 인상을 주기가 쉽고 전반적으로 곡선감을 느끼게 하므로 명쾌한 느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결점 때문에 통통한 사람의 옷은 될 수 있는대로 검은 빛깔이 좋습니다. 또 같은 빛깔이라도 탁한 색조의 옷이 좋은데 그것은 짙고 탁한 색조가 차분히 가라앉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옷감은 표면을 매끄럽고 단단하게 가공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읍니다. 이런 질감은 물체를 부풀려 보이게 하지 않고 축소시켜 보여 줍니다. 통통한 사람의 옷 스타일은 곡선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늬가 있는 옷일 경우 그 무늬는 선명한 것일수록 좋으며 특히 세로줄 무늬 같은 직선감이 있는 천을 쓰면 명쾌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깃과 깃사이 그리고 첫번째 단추를 잇는 브이라인은 될수록 길이 파는 것이 좋으며 깃도 넓게 할 필요가 있읍니다. 몸이 아핀 사람은 대체로 통통한 사람의 기준을 반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조끼가 있는 옷을 입으면 브이라인의 깊이가 줄어들어 보이게 되므로 훨씬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핀 사람들이 염두에 둘 일입니다.

다리가 짧은 사람에게는 일자 바지가 좋습니다.

얼굴이 몸통에 비해서 큰 사람은 몸이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 밝은 톤의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크게 보이려면 체크 무늬가 가로 파지는 무늬가 적당하며 천의 질감은 거친 쪽이 좋습니다. 그밖에 상대적으로 어깨선이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좋으며 크다는 인상을 온몸에 고루 분산 시키기 위해 깃이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깃이 크게 강조된 더블을 입으면 아주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읍니다. 물론 얼굴이 작은 사람은 이 기준을거꾸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리가 몸 전체의 균형을 생각할 때 유난히 짧은 사람이 있읍니다. 꾸물거리고 답답해 보이는 것은 뚱둥한 사람보다 심할 수도 있으므로 옷의 빛깔, 무늬, 질감은 뚱뚱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고리를 좀 짧게하는 것이 좋지만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엉덩이 중심에서 1~1.5센티미터쯤 짧게 올라가는 길이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소위 나팔바지나 맘보바지는 다리가 짧아보이는 결점을 더욱 심하게 드러내므로, 허벅지에서 발등까지 옆에서 보면 넓이가 같아보이는 일자 바지를 입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리가 길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복이니까요.



키가 큰 사람은 큰 무늬가 어울립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작은 무늬가 좋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옷 입는 데도 크게 열등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읍니다. 한국 사람은 대부분 키가 작으니까요. 몸을 부풀려 보이려고 지나치게 밝은 톤의 옷을 입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 톤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깔이나 색조가 극단적인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의 질감은 거친 것이 좋으며 무늬는 작은것이 좋습니다. 주머니 덮개나 깃과 같은 옷의 각 부분을 작게 만들어야 키가 작은 결점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큰 치수의 옷을 헐렁하게 입는 것보다는 자기 몸의 남성적인 곡선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키가 작더라도 어린 아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키가 큰 사람은 어떠냐고요?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걱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은 옷을 잘 입는 방법중의 아주 기본적인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누구나 자기 옷차림의 기본원칙으로 삼아도 좋을 꽤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정보가 여러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드자패션 캐드브리지 ALL NEW WOOL

특별기획

복지 사회와 우리의 현실

국가는 무엇을 되돌려주고 있는가 <1>

○…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의 건설, 사회정의…○
○…의 실현, 경제성장결실의 공정한 재분배 등의 표…○
○…어가 빈번히 나붙기는 했으나 무엇이 「복지국가」…○
○…이며, 무엇이 「사회정의」이고 또 무엇이 「공정한재…○
○…분배」인가에 대한 개념정리가 되지않은 채, 국민…○
○…으로서 당연히 수혜되어야 할 기본욕구충족조차도…○
○…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
○… 우리사회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중의 하나…○
○…는 분배차원의 복지문제이며,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것으로서 당연히 해결되어야하고 해결…○
○…필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
○… 현재의 경제구조가 갖고있는 모순때문에 사회구…○
○…조속에 은폐되어진 부분들은 재고되어져야하며, 이…○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개념설정을하…○
○…고 우리의 현위치를 가늠하면서 제반정책들의 실…○
○…태와 방향을 알아보고자한다. …○

〈 글실는차례 〉
1. 시리즈를 시작하며 —복지사회와 우리의 현실
2. 산업재해와 노동복지의 실태
3.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택정책의 현황과 영세민
5. 시리즈를 마치며좌담—

Ⅰ. 머리말

사회복지, 복지국가, 사회보장, 복지사회같은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고 듣고 말하는 개념으로 친숙해진것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전문용어들이 어떻게 하여 탄생하고 지금 인류사회가 대체로 이 술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은 복지사회라는 협하고 먼 길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생각해 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Ⅱ. 복지국가(welfare state' wohlfahtstaat) 의개념

「복지국가」라는 술어가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쓰기시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개념이라고 보는것이 오히려 바른것같다。 1880년대의 독일 비스마르크 정부가 도입한 사회보험제도를 일컬어서 「복지국가」라고 부르기 제일먼저였다。

1930년대 말엽에 세계적인 대공황의 폭풍이 인류를 혹독한 도탄에 빠뜨리고 나라마다 독재 강권정부들이 소위 「권력주의국가(Powerstate)를 수립한 상황속에서 영국에서는 옥스포드대학의 알프레드 지머언교수가 그 반대개념으로 내놓은것이 「복지국가」(welfarestate) 였다。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일터를 잃은 국민들을 힘으로만 다스리는 정부보다는 모든 국민을 경제적인 파국에서 소생케하는 복지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씌어진 말이었다。

Ⅲ. 「복지국가」의 내용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8년까지 영국은 「사회복지국가」(Social Service State) 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을 통해 복지국가 건설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고 볼수있다。 그럼 국민의 복지를 무엇보다 강조하며 이루어진 복지국가의 내용이 대체로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사회보험」이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복지국가의 반석이며, 첫번째 기둥이라 할 수있다。 1897년에 시작된 산업재해보험이 반세기동안 여러모로 성장해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 이르도록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를받는 제도를 국가가 책임을 지는일이 이루어 졌고, 소위 「사회보장국가」가 되었다。

질병과 실업의 무서운 쇠사슬에 묶여서 신음하던 국민들은 해방의 감격을 느끼며 기뻐했다。 일을 못하는 때와 아파 누어야 할때 실업과 질병의 고통자체는 어쩌할수 없어도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생계비의 수입감소나 단절만은 극소화 되었고, 노년이 되어 일할수 없는 상황아래서 생기는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연금제도가 생겨서 노후의 복지를 보장받을 활로를 찾은것이다。

때를 같이하여 새로 생긴 복지국가의 시책이며 두번째 기둥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 써비스」 (National Health Serviice) 제도였다。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헌법이 명시하고 불행하게 병마에 시달리게 되면 진찰로부터 치료의 일체를 국가가 무료로 책임을 지고, 그를 위해 국민 모두가 국민 건강세를 불입토록하는 혁명적인 제도가 생겨 입원비 수술비가 없어 사망하는 예는 줄어들었다。

복지국가의 세번째 기둥은 「완전고용」 (Full Employment) 이다。 일할수 있는 모든 국민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고 가족을 부양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린는것이 없이는 「사회보험」 이나 「의료제도」가 완벽하게 유지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의미가 이미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사실인 것이다。 학교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이 실업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서 실의와 실망과 타락으로 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일을 하고, 할수있는 제도적 장치야말로 「복지국가」의 참 모습이라고 할수 있다。

네번째, 그러나 어떤 의미로는 제일 중요한 복지국가의 기둥은 「국민교육」 이다。

영국에서 1870년에 시작된 국민학교 의무교육제도는 착실하게 자라나서 중학교·기술학교까지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교육비 전액을부담하는 전국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얻어낸 것이었다。 중등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에 나가서 할 일들을 미리 배우게 하는 실업훈련을 중요시했고,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동안까지는 누구나 교육비가 면제됨뿐 아니라양육비도 부모에게 지불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네 기둥을 가진 「복지국가」 건설은 마침내 1945년에 입법절차를 거쳐서 실시된 아동수당, 혹은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Act) 으로 꽃피게 되었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아니 모태에 임태되는 찰라부터 국가의보호와도움을 받는 보건과 아동양육비 제도가 복지국가의 기틀을 이루었던 것이다。

틀론 어느나라이던지 복지국가로서의 면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와 심신장애자를 위한 제반 복지사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많은 영역들을 뜻있는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힘을 모아서 사회적 낙오자나 낙후집단을 보살피는 일이 「복지사회」라는 새로운 개념하에 골목할만큼 발전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일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협계 「복지국가」 외정의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국민 개개인의 건강, 영양, 교육, 취업, 수입 (최소한의 생활비) 을 국민의 권리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나라를 의미한다고생각할수 있다。

「인간의 형복」을 해방하는 4대요인인 빈곤, 질병, 무지, 불결의 악순환으로부터 사회를 해방하는 투쟁한 목표아래 국가가 총력을 사회복지에 쏟는 제도를 통칭하는 술어라고 하면 좋을것 같다。

산업혁명과 자본제사회의 성장으로 생기게 된 빈곤의 그늘속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치부고 있는 불안과 불행의 무서운 댓가를 경감하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으로 회생시키려는 사회적 양심의 활동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Ⅳ. 한국 복지사회의 경과

복지국가, 복지사회의 힘들고 험하고 머나먼 길을 걷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의 대열속에 우리나라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쯤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위 중진국」에서 「선진 조국」이라는 표어가 지난 70년대로부터 80년대로 들어서면서 우리눈앞에 흔히 나붙고 있다。

우리가 처해있는 현주소를 정확하게 밝혀 보는것은 우리의 걸어갈 앞길을 이해하고 방향을 바로 잡는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나 복지국가란 말은 본단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선포한 1948년부터 생각해야 한다。 독립된 나라로는 너무도 무기력하고 압달한 현실속에서 새정부가 출범했다。 후진국중에서도 작고도 약한 배였던 우리나라는 출범하자 마자 겪어야했던 6·25전쟁으로 50년대는 중앙의 격동속에서 나라전체가 앞거지로 되어버린 폐저된 시기였다。

우리의 「사회복지」의 역사는 6·25참변의 쓴 열매였던 고아·과부·실향민·피난민들의 심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이 되었고, 고아원과 모자원의 시설들이 사회사업의 요람이었다。 복지사회의 개념은 1960년대이후 경제부흥과 개발계획에 힘입어 성장해 온 산업화 사회의 과정속에서 우리들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50년대의 혼란기에 태동한 사회사업, 자선사업, 구호사업들이 60년대에 들어서면서공무원 연금법, 선원과 군인의 보험법 (1962) 과함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의료보험법과 함께 출범, 사회 보장국가로서의 법률적 체모를입단은갖추었다。

또한, 사회복지에관한제법도 60년대초에 생겼다。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이 1961년에 통과되었고 재해구호법이 다음해인 1962년에 제정되었다。

산업사회, 도시화현상속에서 산업재해, 실업, 노사분규와같은 노동문제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차차 심각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의 급격한경제성장, 산업구조의 중공업화 수출제일주의의 팽배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문제들을 일으켰다。 농촌사회의 수천년이어온 전통이 일시에 무너지고 산업도시 사회로 옮겨가면서 오는 사회적 붕괴 (혈연지연사회의 해체)와 함께 공장과 아파트의 철근 시멘트 문명속에서 비인간화 하여가는 사회구조가 서서히 틀을잡기 시작하였다。

「상위 중진국」이란 열띤 표어아래 1970년대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많은 사회적 댓가를 치루지 않으면 안되었다。

과학기술혁명이 폭발적인 인구의증가를 가져오게하여 1960년대초에 2,500만이던 것이 10년후에 3,224만으로 비좁은 땅을 한결더 어렵게 만들었다。

노동인구도 10여년만에 800만에서 1200만으로 급증하게 되고 여성과 연소자들의 경제활동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인구와 노동문제와 수반해서 가족해체, 노령화, 산업재해, 의료보건, 교육문화 전반에 걸쳐 문제들의 폭이넓어지고 심각성의 깊이가 더해졌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은 학자들의 논란대상이 아니고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에 못 미쳤으며,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은 GNP성장에 비해 더욱 떨어지고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불균형적 소득분배는 기아노동자층이 80년 15%에서 85년 15.2%로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전체빈곤층이 80년·39%에서 85년 47%로 훨씬 늘어났다는 통계에서도 들어난다。

또한 소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직접세율도 71년도 60·9%였던것이 현 최근 몇년간 기간 중에는 계속30%선으로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상품들에 부과하는간접세율이 71년 38·9%에서 5공화국 기간동안 60%선을 넘어가게 되었다。

저소득층에 불리한 간접세율이 60%를 넘는 것은 세계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혹독한 것으로 작금의 사회분배상황의 문제점을 여실히 노정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복지사회」를 향해 우리 나라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경제적인 부분에 견주어 볼때 너무도 뒤떨어져 있는것을 부인할수 없다。 국민총생산이나 국제교역은 벌써 전세계에서 10위권에 육박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이나 복지제도는 아직도 후진국그룹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이 골고루 사람답게살 수 있는 보장된 사회가 복지국가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길이 너무 멀고 고갯길이 험하고 높다고본다。

유엔이 여러차례 강조해 온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우리나라에서는 소홀히 해온 것이 큰 문제라고 할수있다。 경제대국은 되어가는지 모르지만 우리사회의 여러가지 지표를 놓고 볼때, 우리는 「선진조국」을 크게 외칠 뗏뗏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다。 몇가지 현실 상황만 열거해보자。

첫째, 한 생명이 세상에태어나서 자연스러운 사람으로 무덤에 매장될때까지 겪어야 하고 이겨내야하는 삶의 장애들을 놓고 우리 사회를생각해 볼때, 우선 한 어머니가 아기를 임태하면 「모자보건」을 위한 등록과 함께산전에 정기진찰과 임산부의영양관리가 제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자보건 시스템은 아직도 극히 후진상태이다。 모태안에있는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적 조치가 아직 없고 안정된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출산전후의 건강관리·휴가같은 특별복지도 아직은 전무한 형편이다。

두번째로, 어린이는 우리나라에서 우선 「시험지옥」 입학을 누구나 겪어야 하는 풍토이다。 복지국가나 선진사회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학교 의무교육은 헙하고 있지만 중학교 시절부터 어린이들은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생지옥같은 경쟁의 대열속으로 던져지게 되어, 가정과 학교의 압력에 못 이겨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우럽청소년들이나 부랑아들이 강제수용되어 가톡과의 연락이 끊긴채 곤욕을치루다가 인간다운 대접을 못받고 여러가지 참혹한 경험에 빠지는등, 큰 사회문제로 최근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사회복지정책의 큰적신호가 아닐수없다。

세번째로, 「국민 복지 연금」의 시행을 위해 정부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이 제도는 사실상 상당한 재고가 필요하다하겠다。 「국민」이란 술어를 쓰려면 모든 지적있는 국민이 모두 참여할수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법안대로라면 정규적인 보수를 받고 있는 직업인 중심의 제도로서 「국민」이란 말은 적절치않다。 「복지 제도」라면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을

이 윤 구
〈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수·사회행정학박사 〉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야 한다。 단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리라고 보지만 우선 농민들이나 도시빈민, 자영업자들의 보험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에 맡겨져 있다는데 문제가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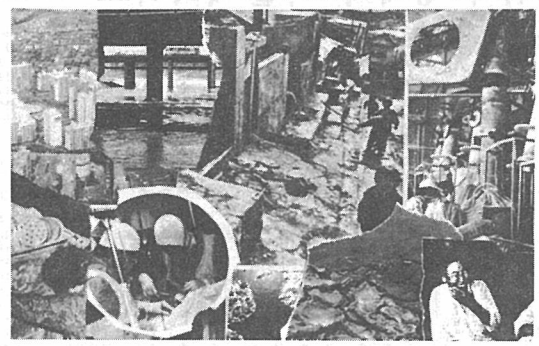
네번째 심신장애자 복지는 참으로 걱정스러운 문제라할수 있다。 1981년 6월에 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다음해 5월에 시행령이 나왔지만 고용촉진, 부양수당등 중요한 법의 내용이 대단히 약할뿐더러 직업훈련 재활원호의 부분들은 후진성을 면치 못할 형편이다。 장애자의 통계, 등록 조사등이 아직은 신빙할만한것이 못되는 정도 안타까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어야할

보건·의료제도는 아직도 치료중심·병원중심에다가 의료비가 비싸서 병원을 못찾는 국민이 너무 많다。 명년부터 전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고 시행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4천만 국민의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보건보험의 태산같은 문제들은 아직도 산재해있고, 일이년에 풀수있는 간단한 과제가 아닌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적 자유권에 근거하여 발전한것으로 생산의 증대를 가져왔으나 분배체계의 모순때문에 부의 편재를가져왔고, 실업문제의 해결이라든가 빈자의 생존권을 확보할수는없었다。 제도적인 복지사업의발전을위한 연구, 조사, 사회교육등의 활발한 준비단계가 필요하고, 정부와 국민의 부단한 노력과 과감한 투자가 요청된다。

우리는 아직 복지사회의 제수준에서 하위중진국에 속해 있다。 끊임없이 할일과 갈길이 먼 현주소를 재확인하는것이 요청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분배체계 모순이 가져온 불평등

구조는 보다 현실적인 복지정책으로 해결되어야



깨끗한 나눔 깨끗한 생산
유한킴벌리

[pǽntilàinərs]

깨끗한 여성을 위한것입니다.

생리가 아닌 때라도 여성에게는 늘 약간의 분비물이 있지요.
그래서 오후만 되면 벌써 팬티가 축축해지고
얼룩도 생겨 기분이 무척 불쾌해지죠.
특히 배란기, 임신전후, 피임제 사용시에는 더욱 심하답니다.
이럴 때 팬티 안쪽에 '후리덤 팬티라이너'를 살짝 붙여두세요.
그리고 하루 서너번만 갈아 주세요.
하루종일 기분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답니다.
깨끗함을 즐기는 여성이라면 다 아는 것, 다 쓰는 것—
분비물을 깨끗이 흡수해 주는 팬티청결대 '후리덤 팬티라이너'랍니다.

후리덤 팬티라이너의 용도
●평상시, 질분비물을 흡수하여 항상 보송보송한 상쾌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배란기, 피임제 사용시에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여행등 팬티교환이 어려울 경우에 편리합니다.
●생리직전과 끝날무렵에 사용함으로써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읍니다.

후리덤
팬티라이너

*표는 미국 킴벌리-크리크의 세계적인 등록상표입니다. * REGD. TRADEMARKS KIMBERLY-CLARK CORP., U.S.A.

학생대중속에「자리매김」해야 할 총학생회

——87학년도 총학생회의 방향모색

87년 상반기는 지난해에 이어 급박히 고조되는 위기국면으로 이에 시기적절히 대처하는 총학생회의 활동방향과 그 추진력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절실히 요청된다.

84년이후 유화국면을 맞아 부활된 총학생회는 85·86년을 거쳐 학생자치의 자율적 기구로 자리매김되는 가운데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그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자면 우선 총학생회의 사업수행에 있어 철저한 역할분담및 일관성있는 지도부로서의 통제력이 미약했다는 것을 지적할수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지난해 12월3일 발족한 서울·용인 총학생회가 추진해온 일련의 행사들을 살펴보자면 내부일원선정, 신입생 입시상담소, 고 박종철군 추모제, 수입인지문제, 신입생환영회등이 있다. 그러나 문교부의 하달 지침관계등으로 학교당국과 마찰이 빚어져 몇번의 진통을 거쳐왔던게 사실이다. 이와함께 행사의 진행과정에 있어 학생대중의 의견수렴이 미약했다는 것을 지적할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 용인 총학생회는 앞으로의 활동노선에 대해, 대사회 모순 척결인 정치투쟁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기본입장과 함께 학내민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대해 손근우 총학생회장은 『작은 일에서 부터 학생들의 신뢰를 얻어 그 기반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한다. 따라서 학생대중의 현실적 이익실현에 대한 요구를 이시대 우리의 과제와 어떻게 적절히 결합시켜 학생대중을 정치의식화시키느냐 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실천력의 부족으로 또다시 「이론」 「언어남용」 외상태에서 끝나는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대해 임찬수 부총학생회장은 『우리 총학생회의 실천성 부족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이 학생대중 자체가 되려고 하지 못한 점에 있다』고지적했다.

한편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역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작년12월 허성욱 용인총학생회장당선후 방학기간중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종의 공백기로서 지내는동 출발부터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현재 벌어지고있는 신입생환영회행사 마지막날 거행하려했던 양캠퍼스간의 대동제도 무산되는등양 캠퍼스 총학생회의 분리체제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총학생회의 활동의 전반적 침체는 총학생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학생운동의 흐름과부관하지 않다.

지난해 10·28건대사건이후 전체학생 운동권 내부여망이소진되었으며 본교도 예외는 아니다. 실제 작금의 학생운동의 흐름은 자체적 논의구조의 기반없이 바깥으로부터 유입된는 데밖으로 인한 「종파」 외문제가 아직도 미해결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특히 학생대중과 유리된 채 이러한 과정이 학생대중속에서 걸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할 「통일된실천력」이라는 맥락에서 파악되지 못해 도다른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결국은 가 총학생회의 학내기반 부족은 학내활동에 치명적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총학생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총학생회의활동정상화및 헌신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기획부〉

학생대중 기반확보와 신뢰성회복이 선결과제

정치투쟁 편향은 합법적공간의 제역할을 축소시켜

게 학생대중적 기반의 충분한 확보에 외거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했다는것을 들수 있다.

졸제로는 합법적 공개기구인 총학생회가 학내의 정치투쟁제로서의 투쟁위원회의 보조기구로 규정되면서 합법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제로는 이로인한 일반학생들의 총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이 누적돼상호간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네제로는 총학생회 내부적으로 협과장회의 내부정비기간이라는 점과 학내 학생대중의 기반을 고려해 볼때 여태까지 지적되어왔던 학내 구심체로서 미숙함과 더불어 업무의 우선순위가 없는 임시변통적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누차 지적했던 「학생대중의 기반 미약」이라는 점을 고려한 보다 새로운 방법창출과 기본노선의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대두된 점으로 2학년 전방입소 파쟁의 선택에 따른 적절한 대응양태에대해 타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회측의「전방입소교육」에 대한 기본방침이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사계획중 지난해에 비해 새로이 등장한 프로그램을 보면 총학회보발간, 문화강습회, 6·3항쟁 학술심포지움, 총대의원회,써클연합회, 학회연합회 구성등이 있다.

그중 학내학생대중에게 실추되었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주안점으로 총학회보제작과 복지문제를 들수 있는데 복지 위원회는 서울캠퍼스내 동문회장모임, 분실을 센타를 자체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울 용인 총학생회는 앞으로의 활동노선에 대해, 대사회 모순 척결인 정치투쟁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기본입장과 함께 학내민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대해 손근우 총학생회장은 『작은 일에서 부터 학생들의 신뢰를 얻어 그 기반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한다. 따라서 학생대중의 현실적 이익실현에 대한 요구를 이시대 우리의 과제와 어떻게 적절히 결

『한정된 공간에서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가를 재배치하는데 상당히 고심했고 앞으로 문제점이 보이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조를 바꿀생각 입니다』 현재 사서과장을 맡하고 있는 일경원씨는 이번 도서관 내부구조의 변동에 관해 이같이 밝힌다. 어른대 도서관 126평, 문리대 도서관 44평을 합쳐 170평을 차지하는 용인캠퍼스 도서관은 서울캠퍼스와는 달리 분리 운영해야될 참고실, 정기간행물실, 과제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있어 실내 분위기가 다소 소란스럽다.

머구나 작년 한해동안 장서 1만7천여권이 늘어나 도서관의 내부공간이 더욱 비좁아 학생들이 이용상의 불편을 호소한다.

이런문제에 대해 한민희 (서반아어·4) 양은 『여러종류의 책을접할수있어 좋으나 한편으로는 공간이 좁아 답답하고 필요한 책을 고르기가 어렵다』며 이용시 어려운점을 털어 놓는다.

이와더불어 한양은 『문학책을 즐겨 읽는데 그러한 책들이 대부분 낡아 제목도 보이지 않고 사서들이 지극히 사무적이고 불친절하다』며 나름대로의 외견을 말한다.

유현진 (불어 2) 양은 『내부구조만 바뀌었지 내실은 별로 기하지 못했고 '특히 정간물의 경우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책들이 별로없고 있더라도 상당히 늦게 비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까닭에 주로 도서관에서 잡지류만 즐겨 볼수밖에없다』며 운영상의 문제점을 털어 놓는다.

한편 85·86년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대출량이 총4만여권으로 이중에서 문학책이 1만5천여권으로서 가장많고 다음은 사회과학 역사책의 순서인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독서경향을 보면 교양서적 보다는 전공서적들이 많으며 그것도 시험기간에 더욱 심하다고 한다. 이에대해 대출계의 이모양은 『전공분야에만 편중된 독서경향은 학교만 다양한 책들을 고루 기하지 못했고 '특히 정간물의 경우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책들이 별로없고 있더라도 상당히 늦게 비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까닭에 주로 도서관에서 잡지류만 즐겨 볼수밖에없다』며 운영상의 문제점을 털어 놓는다.

한편 85·86년 용인캠퍼스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대출량이 총4만여권으로 이중에서 문학책이 1만공원 후에야 고려해 볼수 있는 형편에 처해 있다.

용인캠퍼스가 설립된지 일곱해째인 지금 학생수가 증가했고 학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때 대학의 중심부라 할수있는 중앙도서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할수 있다. <이순배기자>

"서가증가로 많은책 접할기회생겨"

도서관의 공간확보 시급한 문제

추가신청시 인지대 문제

서울캠퍼스총학생회는 추가수강신청시 접부하는 1천원상당의 수입인지에 대해 3월9 10일간 거부운동을 전개했다.

지금까지 매학기 추가수강신청을 하는 학생수는 5백~1천여명으로 여기서 나오는 인지대 50~1백만원은 지금까지 「학교경비」로 쓰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무과한관계자는 『개강부터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추가수강신청보다 조기수강신청이 바람직하며 추가수강신청을하는 학생들에게 조기수강신청을 권장하기 위해 인지대를 받아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교측의 수입인지첩부시행에 관한 근거는 아직 불확실해서 과태료를「학교경비」에 충당한다고 밝히기만 할 뿐 그 정확한 사용내역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해 학생들의 불신감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문제의 해결과정을보면 학교측은 인지금액을 현재의 상태 그대로 고수한다는 방침으로 이번에 인지대를 미불한 천여명의 학생에 대해 총학생회의 재정인 학생회비에서 인지값을 지불하겠다는 식의 미봉책만 제시할 따름이다. 이에대해 총학생회는 전체학생들에게 「인지첩부거부 서명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나 그 「운동」과정에서 총학생회는 학생들과 전체적인 협의는 않은채 대자보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일의 진행이 늦어졌던 점도 지적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수입인지대가 학교경비로 일방적으로 쓰인다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학생복지향상위해 제공되어야 할것이다.

「외대」지 9월발간예정…편집착수

편집자율권확보, 차기편집위 연계작업부족해

교지「외대」의 편집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돼 87년 9월에 제21, 22호를 합본하여 발간할 예정으로 편집에 착수하였다.

「외대」지는86년 원고내용의 수정과정에서 문제가발생, 지금까지 정간됐었다.

교지발간준비가 완료되는 시기는 보통 매년 1학기 말인데 작년의 경우도 1학기까지 원고가 완료되었으나 문화운동, 교육문제관련 논문등 6개의논문과 그밖에 부분적으로 80여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삭제돼 발간이되지않았다。당시의 원고수정은 교수중심으로 구성된 「교지심의위원회」와 학생처가 담당했는데지난해에 문리대 단대지인 「문리」에(창간호)이등 삭제되었던 논문중한편이 게재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외대」지에 대한자율권의 한계성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편집장이었던 오충환(철학과 87년졸) 군은 『학교측의 지나친 검열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용불성 부족도 함께 비판되어져야한다』고 말한다.

또한 지난해 2학기 들어서 새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원고를 부분적으로 첨삭해 「외대」지 21호를 발간하려했으나 그당시 신임편집장인 신정철 (일본어·4) 군을 비롯한 대부분의 편집위원이 건대사건과 그밖의 많은 사건에관련, 구속되어 구체적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토다시 발간을 연기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실제로 지금 발간작업을 하고있는 편집장을 비롯한 10명의 편집위원중에 작년 교지편집에 참여했던 사람이 전혀없는 실정이라 편집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현 편집진뿐만 아니라 차기 편집진을 위한 인계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된다.

이러한 문제점과함께 「외대」 편집위는 85년도에 총학생회에 정식으로 분리된 후 아직까지 독립된 기구로서의 제자리를 잡지 못했으며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작업도인원부족때문에 힘든 상태이다.

따라서「외대」편집위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지금까지 축소되었던 활동영역의 확대와 편집자율권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시사적인 문제를 학술적으로 심도있게 정리하며 사회제반문제에 대한 시각을 제대로 잡아주어야할 교지가 본래의 발간목적대로 학생출판물의 본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외대학생전체의 노력도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원유헌기자>

민(民)의부름뜬눈

○…전당대회를 두어달 앞둔야당이 분파사태·극적타결 등으로 치열해져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있는요즘。

지난 3월초순경 미국 고위관리 방한이후 분당의 양태가 확연이 변한 것인바 코앵이(?)의 음성적인 지시가 그 관건이되나 국민의 외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데。

현정사에 드러났던 야당의 모습처럼 지금도 여전히 곡두자시에 다름아님을 반증, 정치하는 분들, 파국의 시기가 가까와오는 지경에 민의 부름뜬눈이 언제까지 지켜보기만 할지는 두고 보시압。

○…요즈음 왕산골, 쥐꼬리만했던 복지장학금 액수에 대해 증대의 요청이 일어나만, 그화살이 식당으로 꽂혔다는데。

그동안 막대한 이익금을 취하면서도 변변스럽게 장학금지급을 회피해오던 식당업주, 총학생회에 50만원을 제시했다가, 「식당예산공개」등으로 흡산의 원성이 높이 진탕에튀불수를얻어맞은꼴。

자고로 배꼽만큼 돌아오는 것인즉식당주인 나으리, 그동안의 죄값(?)을갚을수 있는 좋은 기회가되지않겠는지묻고자。

○…신입흡산 환영 주간을맞아 이문법은 첫 날부터 잠조들과 신경전을벌였는데。

정기총회에앞서, 가진「지신밟기」놀이팀이 교문바로 앞에서 벌이자, 혹시나하는 생각에 잠조들이진을 치더니 흡산들과 같이관람(?), 교외진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던바。

광소에는 안나다가 큰웃사때만 하필이면 종기는 최루가스냄새며 전통적인 놀이마저 대학생이 하면 무조건 막고보자는 억측논리(?)가 통하는걸보니 그저씁쓸하기만…。

○…그동안 수많은사연을 남긴채 이문법에서 왕산골로 이주한 철학과의 과사무실이 엄동하게도 교양학관에 자리잡아 문리대 흡산들 마음을 안타깝게하고 있다는데。

철학과 신입흡산들, 선후배가 분리수용(?)돼 가족이나 선배대하기 힘든판국에 설상가상으로 소속단대마저 못찾는 「미운오리 새끼」의 신세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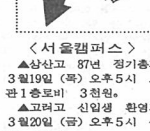
이러나저러나 단대의 선도성과 소속감에 금이 가지나 않을까 우려가 앞서니 형정보시는 나으리님들이 신경좀써주셔야 하지 않을런지。

○…이문법에 추가로 수강신청할때 접부하는 수입인지에 대한 거부움직임이 일어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

타대학에서는 인지대가 없는곳도 많고 머구나 인지부착의 이유가 추가신청인원을 줄이는 「가벼운 감제」라는 학교당국의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터 그부담성여지는 이미 여러흡산들에게 알려진바。

함간에 도는 말중 「학생들 토부터 받은 이익차복」이라는 소리가 안나오게 하려면 인지대의 가부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쓰이는 용도가더욱 중요할 듯。

인지대거부의 뜻



〈서울캠퍼스〉

▲상산고 87년 정기총회: 3월19일(목) 오후5시 도서관1층로비 3천원。

▲고려고 신입생 환영회: 3월20일(금) 오후5시 상징탑 3천원

▲광주고등문화: 3월18일(수)오후 5시 상징탑 3천원

▲전북사대부고 선후배대면식: 3월20일(금)오후5시 도서관1층로비

▲청주여고동문회: 3월18일(수) 오후5시 상징탑

〈용인캠퍼스〉

▲이천·장호원향우회: 3월19일(목) 오후4시 사회과학대 휴게실。

▲순천향우회: 3월20일(금) 오후5시30분 어문대다방 회비 4천원。

〈상영안내〉

◇서울캠퍼스

—시청각 비데오룸(2309호)

▲3월17일(화) 2시30분: 「그랜드 일주전」(감독: 르느와르) 5시: 「욕망의 피에로」 (배우: 알랭·들롱) ▲18일(수) 2시30분: 「암흑가의 최후」(감독: 드니 · 드·라파델리에르) 5시: 「나의사랑히로시마」 ▲19일(목)2시30분: 「상속자」(감독: 필립 · 라브로) 5시: 「공포의보수」 ▲20일(금) 2시30분: 「피아니스트를 쏴라」 (감독: 프랑소와·트뤼포) 5시: 「암흑가의 투사람」(감독: 조세 · 죠반니) ▲23일(월) 2시30분: 「금지된장난」(감독: 르네 클레망) 5시: 「400번의 구타」 (감독: 프랑소와 트뤼포·배우: 장 플레오)

◇용인캠퍼스

1412호 영사실 매주: 화·수·목 오후 1:30

▲3월17일(화) : 「내취월」 ▲18일(수) : 「A bout last night」 ▲19일(목) : 「아마네우스」

〈타대학 행사〉

▲제5회 서강대 독문과 정기공연(연역극)=「GAS」 G·카이저작: 20일(금)오후6시21일(토)~22일(일)오후3시·6시 서강대학교 대극장

▲경희대 신방과 극예술연구회 부활기념 Workshop및 신입생환영공연=「파프카연습」 오스트로프스키원작 「강철은 어떻게마련되었는가」: 3월16일 1시, 17일 5시,18일 5시 도서관시청각실

용인캠퍼스 이름공모

용인캠퍼스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요즘 캠퍼스각곳에 이름을 공모하고 있읍니다。지난해 말부터 공모를 시작하였으나 학생들의 참여미진으로 몇차례연기한 끝에 학생들의 참여폭 확대, 학내 공신력 확보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보다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따라서 명칭을 붙일장소는 외대학보 게시판에 붙여 놓고 있으며 설문지를 제작해 일반 학생들에게 반응여부를 검토하고 있읍니다。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공부보다 먼저 사람이 되어라。

인간의 근본은 공부보다 먼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를 알아야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자라는 산간벽지의 어린이들

할머니의 진지상을 차리는 엄마의 정성에서 효를 배우고 뙤약볕에서 밭일을 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에서 근면과 성실을 배우며 논두렁길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동네 어른들의 모습에서 예를 배우며 자라나는 아이들.

●김원도 영월군 서면 후탄리 쌍용국민학교 후탄분교장 어린이들

봄에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면 가냘픈 새싹들만 감을 메고 거름을 주고 김초를 뽑으면서 폭풍과 비바람을 이겨내야만 가을에 풍성한 알곡을 거둘 수 있다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정직을 배우는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타끌만한 거짓이나 허황된 욕심도 없고,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일만을 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읍니다.

코오롱은 이들이 곧게 자라나서 먼훗날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것을 굳게 믿으며, 이들과 함께 작은 사랑을 나누고 있읍니다.

미래사회에 투자하는 코오롱

문화정책이 낳은 기형적문화 (상)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모형에 편입시키는 문화정책은 문화를 기형화하는 요소

문화정책은 사회에 내재하여있는 문제점을 무마시키려는 수단으로 볼수 있어

글싣는 차례

Ⅰ. 머리글
Ⅱ. 몸글
1. 개요
2. 법률적인 문화조작
3. 국민운동을 통한 대중조작
4. 독점자본과 권력과의 결탁에의한문화정책
Ⅲ. 종합과 맺는말

이 혜 경 〈문화평론가〉

Ⅰ. 머리글

문화란 넓게는 전 사회구성원의 총체적 생활양식에서 좁게는 특수한 기능별로 유형화된 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으로 쓰여진다. 그 분류 역시도 문화의 심미적 도덕적 수준에 따라 고급문화·중급문화·하급문화, 혹은 우수문화·범속문화·저속문화 등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문화의 생산과 수용과정의 특징적성격에 따라 지배계층의 문화·민속문화·대중문화·민중문화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등 일관된 접근방식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과 현실에서의 무정형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은 문화현상을 문학·미술·공연등 구체적으로 작품화된 문화의 결과물만으로 국한시켜 인식하게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경우를 보면, 이는 70년대를 통해 엄청난 양적 팽창을 이루었는데 전시장을 비롯 연주및 무용공연의 수적 증가는 물론이고 간접적이나마 출판물 발행증수의 증가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는 다름아닌 문화계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자금지원으로, 문예진흥 5개년계획으로 대표되는 문화정책이다.

앞에서 전제된 문화인식에서의 일반적 오류는 70년대 문화정책에도 그대로 침윤되어, 결국 문예증흥이라 불리우는 70년대의 양적 풍성함을 구조적으로 한계지우고 있는것이다. 머구나 정책이 갖는 타율적 획일주의와 관료적 합리성의 추구는 가장내성적이어야 할 문화예술의 변모과정을 크게기형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하여 70년대를이어 80년대에문화계는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양적 발전과 질적 문제점의 야기·심화라는 두 가지 측면 모두는 문화정책이 배태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간략하게나마 문화정책이 갖는 본질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문화정책의 논리적 극거에는 문화현상도 경제나 정치현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진행되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특정방향으로 변모되는 것이기에, 외도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투기능의 확대과정과 문화현상에 대한 인식의 변모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문화정책을 아무래도 여타 정책법주보다는 최극의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문화정책은 대중문화의발달 속에서 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그것이 문화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두루 향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엘리트문화주의와 문화적 민주주의의 접합 속에서 2차세계대전 이후에 가서야 본격화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정치·경제적 근대화과정이 일정 수준 진행된 연후에야 국가정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경우에 있어서의 문화정책은 이데올로기적 채색을 담하고, 현실의 특정 방향성 속에서만 문화적 표현과 수용의 자유가 부여되는 대중조작의 기능과 생활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Ⅱ. 몸글

1. 개요

80년 10·26사태 이후 보다 강력하고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잡은 제5공화국은 그 출범을 기준으로 한 단순한 를량공세와 문화계 내적 자율성의 영역을 침식하는 통제정책이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70년대 문화정책이 야기시킨 문화계의 병리적 현상은 8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 심각하게 그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 한편 대통령의 취임선서시에도 민족문화의 발전을 국민 앞에 다짐하도록 규정하여 놓고 있다 (제44조)。이러한 헌법에 입각하여 80년대의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내세우게 되었다。

또한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전략적 목표로 정부는 『문화의 균질화』와 『문화의 복지화』를 표방하고 있다。81년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올바른 민족문화의 기틀을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중장기 문화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상의 배경 속에서 70년대 제1차 문예증흥5개년계획과는 다른 「새문화정책」이 수립되게 되었다。81년에 발표된 「새문화정책」이 시사하는 바에는, 80년대의 문화상황을 문화적 자주성에 대한 인식과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전승 노력, 각 예술분야의 연구와 창작활동등은 크게 신장된 반면 대중문화는 퇴폐화·낭비화되었고, 지역간·계층간·세대간 문화격차와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70년대와는 달리 정책기조에 문화적 혜택의 분배와 사회교육의 문화적 역할재고를 포함시키게 된 점이 특이하다。다시말해 80년대 문화정책은 주대상을 문화예술인으로부터 국민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일반적 계획으로부터 국가사회발전을 지향하는 전략적 계획으로 동태화한 것이다。하지만 이상과 같은 방향 재정립의 와중에서도 전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역시 70년대에 비해 현격히 증가하였다。이에 문예진흥기금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문학·미술·공연예술 등 각 분야는 70년대보다 한층 양적 팽창을 이루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종합해 볼때 80년대 문화정책의 매카니즘은 를량지원을통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대중문화에의 개입을통한 국민동원체제의 강화라는 압축이 공고하게 결합된 형태였다。특히 국민동원체제 구축을위해 치루어진 대표적인 행사는 「국풍81」을 들수있다。(이는 후에 자세히 살펴하겠음)

이상에서 보듯,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은 한마디로 현재의 한국사회가 안고있는 구조적 모순들을 은폐하고 무마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있다고 볼수있다。

즉, 83년 2월 21일 이집회문 공부장관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의 우리 문화예술은 조국선진화에 필요한 국민적인 힘을 생산하고 융집시켜 조국선진화의 정신적 추진력을 공급하는 역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제5공화국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백히 밝혔으며, 83년 10월 문화의날 치사에서는 『우리의 문화정책은 이념간의 갈등과 성격을 상보적 성격으로 변화시킬 길을 모색하면서 우리 개개인의 주체적 상호존중의 의식을 함양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적 차원의 숨은 의도를 시사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제5공화국은 그 전의 어느 행정부보다도 정치적 차원에서 적극적이며 근본적인 문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을 그 방법과 양상에 따라 법률적인 문화조작, 행정기구를 통한 문화조작과 대규모 국민운동을 통한 대중조작, 그리고 독점자본과 권력과의 결탁에 의하여 수행되는 문화정책등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계속〉

〈계속〉

시간표계

민주주의 혁명론
—여현덕·김찬진 편역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과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 경제제도로서의 자본주의와 그 정치제도의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고전적 해석의 해석의 두 경우로서의 레닌과 모택동의 이론등을 소개하고 민주주의 혁명으로서의 인민민주주의, 민족민주주의, 반제 반독점 민주주의혁명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한울퍼낼 값 4,500원>

제국주의론
—김정호편
최근 사회구성체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과학을 올바로기초 지우기위한 토대와를 발점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평가로서 이 책은 제국주의에 대한 규정성을 바르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또한 현재의 제모순을 해결하는 이정표로서 제국주의의 위치를 평가하고 있다。
<지양사 퍼낼 값2,700원>

이데올로기·실천·계급
—에버크롬비지음
사회학 이론의 한 추세인 현상학은 지식사회학을 완전히 간과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전통적인 지식사회학과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간에 빚어지는 논쟁은 마르크스에 대한 두 해석 사이에 불과하다고 이 책은 서술하고 있다。따라서 지식사회학을 마르크스주의적 이데올로기 이론및 현상학과 대비시 으로써 그것이 직면한 고립상태를 해소시키고 있다。
<한민글말 퍼낼값3,000원>

역사의 벼랑끝에서서
—한완상지음
이책은「현실」이라는 구체적 상황속에서의 특수한 의미와상황을 초월한 보편적 의미를 전반적 현실문제에 동시적으로 조명하면서 정치·사회적 제문제를 철저히 분석, 비평하고 있다。
<동아일보사 퍼낼값3,000원>

미국, 그천의얼굴
—시바 로타로 지음
—김영범옮김
「동양작가의 지적여행」이라는 부제의 이 책은 저자 시바 료타로의 기행 에세이집이다。
저자는 미국여행을통해 미국문명의 실상을 날카로운 역사의식으로 분석하면서 현대 국가간의 문명과 문화 그리고 민족성을 비교 서술하고 있다。
<연합통신 퍼낼 값3,800원>

신입생 글모음

얼었던 감물이 녹아내리는봄입니다。
본보 문화부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땅의 언가슴을 녹일 참신한 글들을 모집합니다。형식과 내용은 자유이며 200자 원고지 8매내외로 3월 19일까지 학생기자실에 가져오면 됩니다。

눈에 띈 글

우 정 희 〈어문·태국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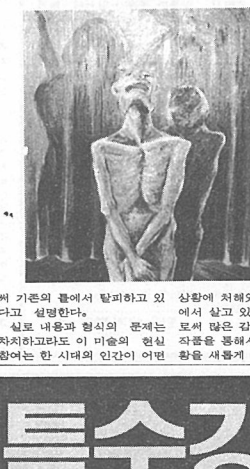
어제는 시집간 누이가 왔었다。
가난이 몰고온 때자국을
얼굴에 가득 싣고 대문을 들어섰다
마당 한가운데서
혐여나
아비도 어미도 누이 빈손만 쳐다 보았다
찌든 얼굴이
누이가 어미잡고 어미가 누이 잡다
그래도 내집입네
엉덩이를 마루에 붙이고
꺼질듯 한숨을 쉰다
네 처지가 내 처지고
내 처지가 네 처지인줄 뻔히 알면서도
어루이
부르는 품이 남은 땅마지기를 말하나 보다
내 땀인줄 알았다 해야하나
인심이 후해서 남 줘버렸다 해야하나
아무도 말을 못한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리도 가슴이 아프냐
아비도
어미도
누이도
이제는 하늘을 쳐다본다
아, 하늘 만 푸르구나

문예산책

침묵을 깬 미술인의「양심선언」

—「반고문전」을 보고

〈김종례작 「뒤에 손두고」: 이번전시회는 작가가 현실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를 두고있다。〉



예술은 인간의 자유에 봉사하는 것이며 현실에 관계를 두고 있다는 지론은 예술이 태초부터 인간의 문제에 비롯되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이러한 예술의 한 장르인 미술은 예민한 감성의 촉수로 진실을 파헤치는 창작작업을 통해서대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해왔다。

그러나『예술은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부자의 집에서는 고기가 썩어가는 이 시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릴리안느 헤리에의 말처럼 인간의 삶, 사회의 문제를 표현하기를 꺼리는 「예술가」라고 하는 예외적인 집단으로 성장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그동안 미술가의 창조활동이 한정된 작업실안에서 탈피하지 못한채 작업실 밖의 삶의 맥락에서 직접적인삶의 체험을 점서화하지 못한 이유때문이기도 하다。

작품은 작가라는 개인과 사회의 요구에 의해서 창조된다고 볼 때, 미술의 사회적 참여는 필연적인 것이고 사회적,정치적인 현실상황은 그 시대 미술의 조류를 형성하게끔 한다 것이다。

때문에 지난 3월10일(화)부터 그림마당「민」에서 열린 민족미술협의회의 「반고문전」은 오늘의 현실을 반영한 미술운동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의실무를담당한 유은종씨는『70년대 말부터 표면화되었던 미술의 현실참여는 작가 자신이 직접 아파하는 부분이 결여됐었기 때문에 작품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했었다』고 말하고 이번 행사는 고문이라는 특수한 사회적인 상황을 통해서 작가가 직접 현실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로 내용과 형식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 미술의 현실참여는 한 시대의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어떤 사회속에서 살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감상자들로 하여금 작품을 통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새롭게 정립하고 혼돈된 현실속에서 확신과 신뢰를 갖고 살아갈수 있다는 해석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 한 학생은『고문을 당하거나 고문에 대한 그림이 좀 무섭다는 느낌이 들지만 고문이 자행되는 현실이 증오스럽기도 합니다』라고 작품을 본 소감을말한다。

관람자 모두에게 이런 느낌을 줄수있다는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전시가 시작되면서부터 경찰측과 마찰을 빚었는데 박종철군 추도식 고문에대해서 묻고 있는 어린이들의 그림들은 전시에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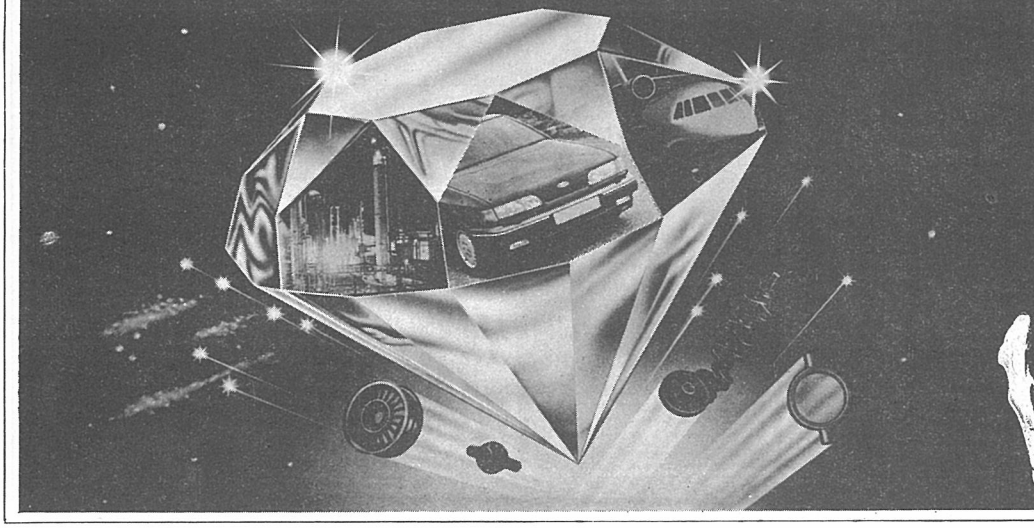
이러한 예술작품의 전시에까지 미치는 관의 통제는 현 정치상황의 모순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처사가 아니겠느냐며 전시자들은 안타까워 한다。

제3세계, 식민지국가, 그리고 한국의 미술사에 나타난 고문장면을 슬라이드로 보여줄 예정으로 있는 이번 전시는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머이상 침묵만을 고수할 수없는 일군의 미술인 자신들의「양심선언」인 것이다。

<환>

철의보석-三美특수강

자동차부품에서 원자로까지 — 신소재·신기술로 미래에 도전하고 있읍니다.



특수강의 세계적 메이커—삼미종합특수강

「철의 보석」이라 불리는 특수강을 생산하는 삼미특수강이 하는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규모의 특수강 제조메이커 이면서도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기간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용 기초소재, 전략소재 생산에만 주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철강 선진국도 인정하는 삼미의 특수강 기술

「산업을 튼튼히, 사회를 튼튼히」라는 이념으로 오로지 특수강 분야에만 매진해온 삼미 특수강은 KS, 서독TUV, 일본JIS, 노르웨이DNV, 등의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그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읍니다.

미국, 서독, 영국 등 선진공업국에 매년 1억달라 이상의 특수강소재를 수출하는 삼미 특수강의 저력—그것은 축적된 노우하우와 300여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중앙기술연구소의 연구개발의 결과입니다. 제강기술의 국내정착, 생산성 제고와 공정합리화로 삼미 특수강은 원가절감,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철강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미래의 산업사회를 이끌어가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읍니다.

'90년까지 연생산 100만톤 달성, 질적·양적인면에서 특수강 소재의 100% 국산공급을 실현하여 가고 있는 삼미 특수강은 오늘도 미래의 산업사회를 이끌어갈 첨단소재생산, 신소재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읍니다.

또한 1987년 3월에 기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 하는 삼미 특수강—철강한국의 힘찬건설을 위해 계속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삼미 특수강이 쓰이는 산업분야

- 특수강봉재 : 각종 자동차, 자동차, 항공기엔진, 전기전자기기, 발전설비, 원자력산업장비 등의 주강부품소재 볼트·너트, 베어링, 공구, 금형용 소재
-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 건축 내외장재, 자동차부품 및 외장재, 주방용품, 욕내외 위생배관재료, 각종 화학용기, 의료설비, 각종 레저시설용 소재 등
- 무계목강관 : 정유·화학공업설비, 식품가공설비, 고압배관설비, 원자력발전설비 소재 등으로 1986년 현재 연3,000여 강종을 개발.
- 특수금속 및 특수합금 : 항공, 원자력, 특수산업 등을 위한 각종 고온 고강도·내식재료, 전자·화학산업의 특수소재.

개발중인 미래의 소재 : 정형외·의료용에 따른 자동차소재, 고광택스테인레스 강판 등 건설 및 건축용산업소재 등은 보기기자의 전기·전자산업소재 각종 원자력발전용 소재, 항공의 위생 및 연료재료용 소재.

산업사회를 튼튼하게 가꿔가는

三美綜合特殊鋼株式會社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935-34 TEL.583-6911.584-6911